

‘국제관광도시부산’ 본격추진 글로벌관광거점도시도약시작

부산시, ‘국제관광도시 온라인 시민보고회’ 개최

부산시는 오는 21일 오후 2시,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대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제관광도시 온라인 시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오는 21일 오후 2시,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대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제관광도시 온라인 시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부산관광복합타운, 모노레일 집라인, 케이ابل카, 트랩과 같은 체험형 관광시설 등의 관광인프라를 계속 확충해 세계 유수의 관광도시와 어깨를 견줄 수 있는 명품 체류형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산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부산관광복합타운, 모노레일 집라인, 케이ابل카, 트랩과 같은 체험형 관광시설 등의 관광인프라를 계속 확충해 세계 유수의 관광도시와 어깨를 견줄 수 있는 명품 체류형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칼럼 원생폭행은나라의 미래에 대한 폭력이다.

정치, 군사, 경제, 문화예술, 사회 복지, 스포츠 등 전반에 걸친 변화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전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경기도주식회사, 웹드라마로 중소기업홍보 나선다

오는 25일까지 웹드라마 PPL 통한 홍보 지원 희망 업체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지난해 이어 웹드라마와 연계한 도내 중소기업 아이디어 상품 PPL 지원사업에 나섰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오는 1월 25일 까지 ‘경기도 중소기업 아이디어 상품 미디어 연계 지원사업’의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언제든 PPL 기회가 또 있다면 다시 참여하고 싶은 정도로 효과가 좋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상주공고 20년 경북지방직 공무원 최다배출 쾌거

경상북도는 2020년 경북지방직 공무원시험 합격자의 학교별 분포 조사 결과 상주공고가 경북소재 고등학교 중 17명의 합격자로 최다배출 고교로 파악됐으며 이는 2013년부터 8년 연속 최다합격자 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노력을 격려했다.상주공고는 1970년에 개교한 경북 특성화고등학교로 2013년 9명의 학생이 공무원에 합격해 대구·경북 고교 중 최다 공무원 합격자를 배출한 명성에 걸맞게 이후 2014년 8명 2015년 17명 2016년 17명 2017년 22명 2018년 22명 2019년 24명 등 교육계와 학부모들로부터 ‘기술직 공무원사관학교’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소문이 자자하다.

이 공무원에 합격해서 22.6%라는 사상 최다의 성과를 올렸으며 경북지방직 공무원 합격자도 모집정원 25명 중 17명을 배출해 공무원사관학교라는 별칭답게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다.

과 집중교육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아울러 상주공고의 ‘5-Track’이라는 독특한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을 통한 시험준비부터 최종합격까지 개별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모의면접 등을 통한 세심한 준비가 있어 가능한 것이다.

영양군의회 홍보 이미지: 풍요로움이 주렁~주렁~ 여기는 영양군입니다. 영양군의회 로고와 다양한 농산물 사진 포함.

서울시, 도시·건축 정보 총망라 '디지털 아카이브' 전국 최초 구축

공무원, 업체, 심의위원 손쉽게 활용... 심의 전문성 및 사업계획 완성도 강화

서울시가 '2030 서울플랜'을 비롯해 시가 그동안 수립한 도시기본계획부터 각 사업별로 따라야 할 지침과 세부기준, 위원회 안건별 심의 기준까지 도시·건축 분야 정보를 한 곳에 총망라한 '도시·건축 디지털 아카이브'를 전국 최초로 구축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같은 도시·건축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업체뿐 아니라 도시건축위원회 심의 안건을 검토하는 심의위원, 업무담당 공무원, 일반시민까지 도시·건축 분야 주제들이 사용하는 자료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

그동안 이런 자료를 보려면 여러 사이트를 일일이 찾아 검색하거나 담당부서에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시는 지정을 만드는 공무원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업체, 심의하는 위원들이 동일한 정보를 한 곳에서 손쉽게 활용 수 있게 돼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심의 전문성과 사업계획 완성도를 동시에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도시·건축 디지털 아카이브는 서울시가 도시·건축위원회 운영과 심의 지원을 위해 '19년 전국 최초로 만든 '도시·건축 위원회 시스템' 내에 구축돼 서비스를 시작했다.

시스템을 통해 '19년엔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운영했으며 '20년엔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및 건축위원회까지 확대해 운영 중이다.이번 아카이브

구축을 계기로 기존에 내부적으로만 사용했던 시스템을 시민들에게 공개한다.도시·건축 디지털 아카이브는 위원회 운영기준 및 매뉴얼 지침 및 세부기준 기본계획 연구보고서 단행본, 5가지 분야의 정보를 담고 있다.

위원회 운영기준 및 매뉴얼 : 위원회 운영 절차 등 행정적 사항뿐만 아니라 각 위원회 안건 유형별 심의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침 및 세부기준 : 관련 법 및 기본계획 사항 외에 계획 수립 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기본계획 : '2030 서울플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등 서울시 정책방향이 담긴 계획서를 볼 수 있다.연구보고서 : '생활권계획 실현을 위한 실행방안',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연구' 등 서울시가 수행한 연구결과물을 담고 있다.단행본 :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서울시 도시계획 홍보자료' 등 도시계획 관련 발간물을 볼 수 있다.도시·건축 관련 기준 등은 사회 변화에 따라 변경되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과거이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연계자료 검색 기능을 탑재했다.파일 형태로 제공되는 방대한 문서에서 본문 내용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도입해 쉽게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 있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위원회 심의 지원 및 아카이브 시스템을 통



해 도시·건축 관련 정보 접근성이 높아져 위원회 안건 심의에 대한 효율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구축한 '도시·건축 위원회 심의 및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사례를

전국 지자체에 홍보하고 지원 요청 시 관련 경험 등을 컨설팅하며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부평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한꿈더하기' 2021년도 신입생 모집

부평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한꿈더하기'가 2021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대상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부평구 거주 초등학교 4-6학년으로 총 40명을 모집한다.기간은 상시 진행하고 총원 시 대기자로 등록된다.

부평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한꿈더하기'는 수학·영어·사회를 포함한 교과학습과정과 코딩·난타·목공메이킹·진로 등 다양한 주제체험활동을 운영한다.분기별로는 주말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 여가문화·장의·융합·진로·지역사회 참여 분야 활동 등을 진행한다.'한꿈더하기'에서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 및 급식비용은 무료지만 준비물이나 교재비는 별도 부담해야 한다.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와 지방정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한 방과 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국가정책지원 사업이다.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학년별 교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또 수시로 긴급돌봄지원 및 비대면프로그램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변재현/기자



가정폭력, 가정불화 치료하는 강동구 가정상담센터

평일 10시~오후 5시, 피해자 보호·상담, 치료·교정 프로그램 등 지원

여성친화도시 강동구가 '강동구 가정상담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해 가정상담이 필요한 이들에게 마음을 치유해 주는 치료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구는 2018년 자체 예산을 들여 설립한 센터를 통해 연간 1,300건 이상의 상담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및 보호시설 인도, 임시 보호 등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접촉을 꺼리는 주민들을 위해 상담실 내 안전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도움이 필요한 주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UN 사무총장인 안토니오 구테흐스는 2020년 4월 성명서를 통

해 "수많은 여성이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위협에 노출되고 있고 경제·사회적 압박과 공포가 커지면서 가정 내 폭력이 늘어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또,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실태 조사 연구'에 따르면 폭력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 중에서 폭력 행동에 대해 주위에 도움을 청한 경우가 1.0%로 매우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가정폭력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정 내 구성원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야기되는 것으로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면 강동구 가정상담센터를 소개해달라"며 "가정폭력으로 상처받은 주민들에게 호·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가해자들의 인식 변화를 돕는 등 어려움을 함께하는 더불어 행복한 강동을 만들겠다.



황규석/기자

'WiFi-Free 서구' 세어도에서 힘찬 출발

인천 서구가 올해 1월 서구 '유일의 섬'인 세어도에서 '와이파이-프리 서구'의 힘찬 출발을 알린다.서구는 어촌체험마을을 조성하고 선착장·관광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세어도 관광이 활성화함에 따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섬 주요시설에 1월 중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할 예정이다.이제현 인천 서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원격교육, 재택근무 등 비대면 활동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서구는 구민의 스마트한 정보통신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WiFi-Free 서구' 구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이청장은 "'WiFi-Free 서구'의 첫 출발지인 세어도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해, 섬 주민에게 공공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지금까지 통신 사각지대에서 살아오던 세어도 주민의 불편 감소와 정보격차 해소, 통신비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서구는 주민들이 사는 마을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와 관광지에도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다.'스마트에코시티'를 표방하고 있는 서구가 세어도에 서로이음길, 생태·문화·관광벨트 조성 등을 추진하며 관광객이 앞으로 더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공공와이파이 구축을 통해 세어도를 찾는 관광객들은 배를 기다리는 선착장에

서부터 어촌체험마을, 다양한 관광지와 전망대까지 자유롭게 무선 인터넷을 이용하며 스마트한 관광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서구 관계자는 "세어도를 시작으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지속 확대해 살고 싶은 서구, 다시 찾고 싶은 서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충남/기자

행복하고 안전한 삶 위한 AI 스피커 친구 만들기

서대문구, 새해 '인공지능돌봄 서비스' 대상 450명으로 확대

서대문구는 다음 달부터 '인공지능돌봄 서비스' 대상을 기존 200명에서 450명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이 서비스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해 취약계층 1인 가구의 정서적 안정감을 높인다.

또한 위급상황 시 긴급 구조 요청 기능을 수행하며 고독사를 예방한다.구는 올해 구비 2억 7천5백만원을 투입해 이 사업을 추진한다.

AI 스피커는 뉴스와 날씨, 음악을 들려주고 거주자와 대화도 나눈다.

또 일정 시간 대화가 끊기는 등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구청 복지정책과의 '케어매니저'가 전화 안부 확인과 긴급 방문에 나선다.

특히 위급 상황에서 간단히 음성만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취약계층을 보호하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구는 이달 22일까지 취약계층 1인 가구의 노인과 중장년,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인공지능돌봄이 이용자를 모집한다.

또 이 내용을 각 동주민센터와 복지관을 통해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 등에게 안내했다.희망 주민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

대문행복1004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스마트한 복지 생태계 기반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취약계층 돌봄이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상순/기자



인천시, 무료시민상담 전화로 받으세요~

코로나 19 방역을 위해 비대면 상담으로 변경

인천광역시시는 올해부터 대면상담으로 진행하던 시민상담센터를 시민 안전을 위해 비대면 전화 상담으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대면 방식으로 운영되던 시민상담센터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전화 상담으로 전환,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이를 유지할 방침이다.

시민상담센터는 시청 민원실에 위치해 있으며 법률, 세무, 소비자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전문분야의 무료상담을 통해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시민중심 민원행정 서비스구현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상담일자는 분야에 따라 법률은 변호사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세무는 세무사가 둘째·넷째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 소비자는 전문 상담사가 매주 금요일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하며 상담 시간은 시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무료시민상담 운영 방법 변경 안내(비대면)

상담 방법
사전 예약 후 상담일 비대면 전화상담 (2021. 1. 4. - 상황 종료 시까지)

사전 예약
전화 ☎ 032-440-2469 및 방문 예약 인천광역시청 민원동 시민봉사과
* 사전 접수일 모령에는 해당 주 및 다음 주 예약 가능
(예시) 방문 상담 예약 접수일 2021. 1. 4. 이라면 예약 가능일 날짜 2021. 1. 12.

상담 일시

상담 분야	상담 요일 및 시간	상담관
법률	매주 화요일 오후 2시~4시	변호사
세무	둘째, 넷째 수요일 오후 2시~4시	세무사
소비자	매주 금요일 오전 9시~12시	상담사

*도, 불, 공휴일은 제외

상담안내
상담은 한 분 당 15분 정도 진행됩니다.
예약 없이 상담은 불가능하며, 원활한 법률상담을 위하여 반드시 사전에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된 시간에 못하시는 분은 필요한 분이 예약할 수 있도록 반드시 예약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당 15분 이내로 제한된다. 사전예약은 인천광역시 시민봉사과에 전화와 방문으로 가능하다.

상담은 예약이 완료된 민원인에게 신청 일자에 상담관이 전화를 걸어 상담이 진행된다.

김충남/기자

서울연구원-독일 포츠담연구소 '기후 비상시대' 대응책 마련 국제화상회의

회복 불가능한 분기점이 다가오는 기후비상 시대에 새로운 삶에 대한 탐구

서울연구원과 지구와사람이 공동 주최하고 독일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가 협력해, 2021년 상반기 매월 시리즈로 '기후변화 콜로키움 2021'을 개최한다.

그 첫 번째는 현 기후 상황을 '기후 비상 시대'로 보고 '지구 한계 내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패러다임을 선구적으로 제기해온 요한 록스트롬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 소장과의 대화 자리다.

'기후변화 콜로키움 1회, 인류세 탐색을 위한 전략'을 타이틀로 해 오는 19일 오후 4시 서울연구원 중

회의실에서 열린다. 기후변화 콜로키움은 요한 록스트롬 소장, 안병진 교수, 권원태 원장, 유정민 부연구위원이 참여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에 따라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다.

록스트롬 소장의 강연에 이어 지구 한계 속에서의 변명과 혁신의 가능성, 서울을 비롯한 도시문명의 급진적 재구성 등을 탐구하는 콜로키움을 이어간다.

지구 과학 공동체의 세계적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포츠담 연구소는 지금 2021년 지구 한계의 경계 어

까지 우리가 와 있는지의 고민을 나눈다. 이번 기후변화 콜로키움에서 다루고자 하는 질문들은, 첫째, '과연 우리는 지금 절벽 끝 어느 지점까지 와 있는가?' 둘째, '전례 없는 수준의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 셋째로 '대담한 전환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삶을 발명할 것인가?'이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지구적 협력과 경쟁의 시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콜로키움을 통해 방향을 찾고자 기획된 것이다.

최광수/기자

동대문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17명 모집

오는 3월부터 4개월간 1일 6시간 근무, 시간당 8720원 적용

동대문구가 구민의 생계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17명을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1월 19일 기준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 동대문구에 주소지를 둔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이면 지원 가능하다. 모집 분야는 칼같이·우산수리 재활용 사업 및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 양성·과전사업 등 7개 사업으로 근무시간은 1일 6시간 이내, 주 5일 근무가 원칙이며 급여는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이달 19일부터 29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신청서 접수 마감 후 심사를 거쳐 최종 참여자를 선발하고 다음달 24



일 결과를 개별 통보하며 최종 선발된 참여자들은 오는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근무한다. 구는 신청서 접수 마감 후 심사를 거쳐 최종 참여자를 선발하고 다음달 24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경기평생교육학습관, 학부모교육원 시즌2 운영 시작

학부모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을 펼치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이 21일과 22일에 진행하는 2021년 학부모 참여교육 '싸우는 아이들, 치유하는 부모들'을 시작으로 '2021년 학부모교육원 시즌2'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학습관은 2020년부터 '학부모교육원 사업'에 역점을 두고 학부모교육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녀 평생학습에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왔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1년에는 학부모 교육 수요를 반영한 학부모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고 학교 밖 청소년 부모 대상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별도로 마련해 제공한다. 또 학습관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다문화 학생 등 취약계층과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도교육청 관련 부서와 학교 밖 청소년센터 '꿈드림'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확대해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적성과 진로 찾기, 부모와 자녀 관계개선 프로그램, 학교 밖 청소년 부모의 경험 공유와 나눔 활동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학습관은 디지털 크리에이티브 세대와 부모를 위한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할 예정이다. 학습관이 마련한 프로그램은 2021년에도 온라인교육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체험이나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소규모 대면·비대면 교육을 병행할 방침이다.

2021년 학부모 학교참여 교육
싸우는 아이들, 치유하는 부모들

1차시 1/21(목) 10:00-11:30 가정과 학교에서 갈등 해결을 위한 회복적 자녀교육의 이해

2차시 1/22(금) 10:00-11:30 회복적 가정교육을 위한 자녀교육 적용 질문&심층법

강사 한정훈
한국평생교육진흥원 교수
서울시교육청 가정지원팀 팀장

신청기간: 2021. 1. 14(월) ~ 선착순
모집대상: 학부모 200명
신청방법: 홈페이지 (신청접수 불가)
www.gjlec.go.kr/
수강방법: ZOOM 실시간 강의
기타문의: 031-259-1056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올해부터 학습관 프로그램 수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학부모가 들어야 할 필수교육 시리즈'를 기획해 준비 중이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이진규 관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 대면 강의에 한계가 있어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부모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체감하고 학부모를 위한 평생학습 확대 필요성을 느꼈다"며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와 교사 역할을 하는 가정과 부모에게 바람직한 자녀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교육에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학습관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부평구 청소년수련관, 온라인 청소년 정책 교육 진행

부평구청소년수련관이 16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 수련관 유튜브 채널에서 '청소년 참여' 청소년정책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가 확대되는 시대 변화에 따라 청소년들이 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올바른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청소년정책 전문가인 최창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박석준 국가교육회의 청년특별위원장이 각각 40분 동안 다양한 청소년 참여 방식을 이야기하는 형태로 구성됐다. 교육 영상은 부평구 청소년수련관 유튜브 채널에서 누구나 시청 가능하다. 또 영상 시청 후 오는 31일까지 각 영상의 설명란에 작성된 링크를 통해 시청 인증 및 만족도조사에 참여하면 제로웨스트를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에코백을 받을 수 있다. 수련관은 1·2강 영상을 모두 시청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착순 40명을 선정하고 수령방법은 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박건호 부평구청소년수련관 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소년 정책의 대상인 청소년들이 '참여의 의미'는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되

2021 부평구청소년수련관
온라인 청소년정책 교육

청소년정책 전문가와 함께 하는 온라인 청소년정책 교육

교육기간: 2021.01.16(토) ~ 01.29(금) | 시청방법: 수련관 유튜브채널에서 교육 시청

교육내용: 민주주의와 청소년참여 등 | 이벤트: 업로드된 1,2강 교육 모두 시청한 후 각 영상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시청 인증

교육구성: 1,2강 (교육당 40분씩 2회) | 만족도조사에 참여한 선착순 40명에게 친환경 에코백 제공

대상: 부평구 9~19세 청소년 누구나 | 참가비: 무료

문의: 032-500-2231

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코로나19로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부평지역 청소년들에게 안전

하고 즐거운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남원시

역사가 살아 숨쉬는 관광·문화도시
그 품격을 더욱 높혀 나가겠습니다

남원시청
남원시립도서관
남원시립박물관
남원시립미술관
남원시립체육관
남원시립공연장
남원시립수목원

오산시립미술관, 야외컨테이너 전시 'SHOW CON' 작가 공모

경기도 오산시 오산시립미술관은 오는 2월 5일까지 야외 컨테이너 전시 'SHOW CON' 전시 작가 공모를 진행한다. 야외 컨테이너 전시 'SHOW CON'은 기존 컨테이너를 시각 예술가를 위한 전시 공간으로 개조한 것으로 총 3개의 컨테이너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작가 공모를 통해 12명의 작가를 선발할 예정이며 모집 대상은 야외 컨테이너 전시에 관심이 있는 20세 이상의 예술가로 지역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작가 선정은 서류 및 포트폴리오 심사를 통해 진행되며 최종 발표는 오산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공모 신청을 희망하는 작가는 오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접수서류를 다운로드해 E-Mail 접수를 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1월 18일부터 2월 5일까지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가들에게는 전시 기회와 함께 창작지원금이 주어진다.



전시는 작가 3명씩 총 4회 진행되며 전시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이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야외 컨테이너 전시 'SHOW CON'은 야외 공간을 활성화해 문화

예술 향유 공간 및 작품 감상 기회를 확대하며 전국 공모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에게 예술 활동 기회를 제공한다.

김영안기자

“하남 ‘덕후’들 다 모여라” 본격 ‘찐하남테스트’ 개막

하남시, 상징물 조례 개정에 따른 이벤트 열어

하남시는 시를 나타내는 상징물과 브랜드 자산을 홍보하는 '찐하남테스트' 이벤트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하남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시의 브랜드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된 이번 이벤트는 시를 상징하는 명소와 이미지, 주요 시설 등을 맞추는 퀴즈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달 31일까지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에서 '찐하남테스트'로 검색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하남시의 상징물을 친숙하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하남의 브랜드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근기자



고양시 한뫼도서관, 어린이 저널리즘 언택트 교실

‘뉴스 읽기, 뉴스 일기’ 운영

고양시 한뫼도서관이 겨울방학을 맞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저널리즘 언택트 교실 '뉴스 읽기, 뉴스 일기'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미디어 이용법, 가짜 뉴스 분별력 등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강의는 한국언론진흥재단 김남경 미디어 강사가 맡는다.

어린이들이 전문 미디어 강사에게 올바른 뉴스 읽기 방법을 배워 뉴스 일기를 만들고 실제로 뉴스를 제작해 보는 온라인 활동을 통해 뉴스 생산자가 되는 색다른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특히 주제와 연관된 뉴스, 다큐멘터리, 광고 방송, 칼럼, 만평 등 여러 장르의 콘텐츠에 대해 배우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미디어 글쓰기 능력 및 논리적 사고 단련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뉴스 읽기, 뉴스 일기'는 다음달 3일부터 24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씩 총 4차시에 걸쳐 열린다.

11~13세 어린이 15명을 대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을 활용해 언택트 교실 수업을 구현한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고양시 도서관센터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고양시 한뫼도서관 문화행사 담당자는 “겨울

뉴스 읽기 뉴스 일기

어린이 저널리즘 언택트 교실

1차시: 뉴스와 친해지기
활동: 오늘의 뉴스 일기

2차시: 뉴스 속 인물에게 인터뷰하기
활동: 뉴스 속 인물 인터뷰

3차시: 그림책으로 배우는 가짜 뉴스
활동: 퀴즈로 푸는 가짜 뉴스

4차시: 뉴스 읽기 뉴스 일기
활동: 뉴스에 내 의견 담기!

일시: 2021. 2. 3. ~ 2. 24.
매주(수), 10:30 ~ 12:30, 총 4회

대상: 포동학교 4~6학년, 15명

형태: 온라인실시간 강의(ZOOM 활용)

강사: 김남경(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 전문강사)

신청: 1월 20일(수) 오전 10시 ~ 고양시도서관센터 홈페이지 접수

문의: 031-8075-9105

고양시립한뫼도서관

방학이 시작됐지만, 코로나19로 문화 활동에 많은 제약이 받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이번 프로그램이 올바른

미디어 생활을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근기자

포천 고모리에 조성사업 본격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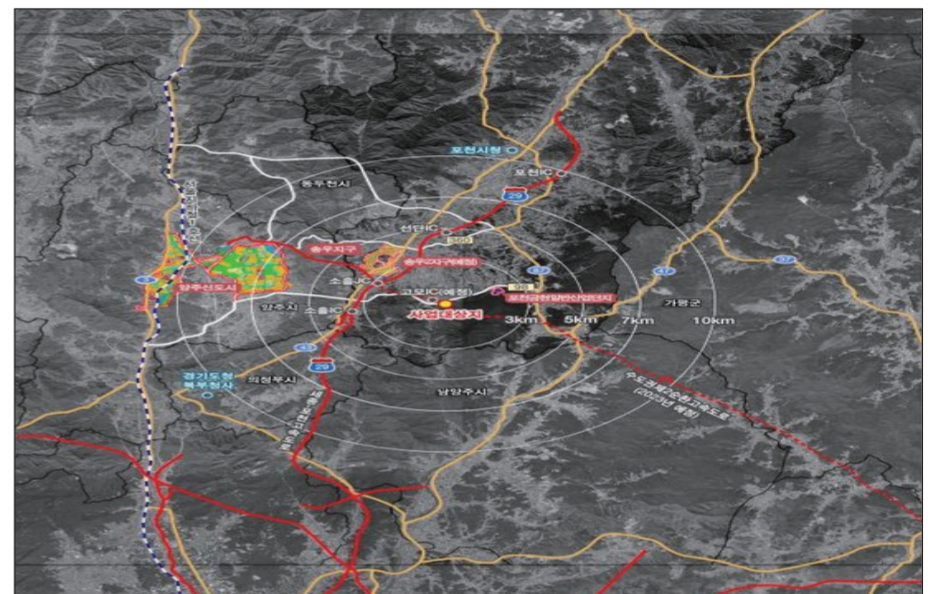
포천시, 호반산업 컨소시엄과 고모리에 사업 시행을 위한 공동사업협약 체결

포천시는 지난 15일 호반산업·교보증권 컨소시엄과 '고모리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한 사업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 사업은 '고모리에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주)한샘개발에서 추진하기로 했으나, 지난해 (주)한샘개발에서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는 의견을 보내오며 따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후, 포천시는 경기도와 협력해 새로운 사업자 발굴을 추진해 왔으며 (주)호반산업이 주관하는 기업 컨소시엄과 협의를 거쳐 민간합동사업추진을 위한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코로나19로 인해 별도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진행했다.

협약의 주요 골자는 포천시와 호반·교보 컨소시엄은 '고모리에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을 위한 민간합동 SPC를 설립 포천시는 관련 인허가와 인프라 지원 등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 호반·교보 컨소시엄은 사업비에 대한 투자와 함께 산업단지 책임 준공 등을 약속했다.

공동사업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시는 신속하게 SPC설립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며 호반·교보 컨소시엄은 올해 내 관련 인허가를 마무리 짓고 내년 초 착공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고모리에 산업단지는 경기도와 포천시의 역점사



업에도 불구하고 여러 어려움으로 지연되어 왔다”며 “이번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력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주)호반산업 김진원 사장은 “호반그룹의 건설계열은 다수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수주해 진행하고 있다”며 “경기도, 포천시와 협력해서 민간공동개발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보증권의 김해준 대표도 “교보증권은 72년의 역사를 갖는 국내 1호 증권회사로서 그간의 경험과 역량을 토대로 고

모리에 산업단지가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모리에 산업단지는 기존 세종-포천고속도로 소흘IC와 근거리에 입지하며 2023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고모IC가 개통되면 수도권 전역에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게 될 예정이다. 한편 시와 호반·교보 컨소시엄은 기존의 가구산업 중심의 산업단지에서 탈피해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와 식품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고려한 복합 산업단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영기기자



대구 엑소디움 센트럴 동인

안산시, 2021년 공공하수도 시설개선 박차

양평군, 도시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LH 지역균형발전 전문관 위촉

올해 국·도비 914억원 포함 총 1천690억원 예산 투입

양평군, 지역균형발전 전문관 위촉으로 양평군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동력을 다

안산시는 대형 지반침하 예방과 '깨끗한 물 관리'를 위해 올해 국·도비 914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천690억원을 노후하수관로 정비 및 신규 지역 하수관로 신설 등 공공하수도 시설개선에 투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안산시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 540억원을 투입해 주거지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공사를 완공했다. 또한 고잔동, 일동, 본오동, 사동, 초지동 일대의 노후·불량 하수관로 38.8km 정비를 완료하고 시설개선을 위한 국·도비 375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2018년부터 추진해 온 하수1처리장 공장계열 생물반응조 악취개선공사 시화지속위 환경개선 특별대책 로드맵 사업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안산시 스마트하수관로 정비공사 대부도 하수관로 정비공사 안산 물재이용시설물 설치사업과 안산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신규사업까지 포함해 모두 7건의 공사에 사업비 1천69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시는 단원구 성곡동 소재 공공하수처리장 시설개량으로 하수처리과정

에서 발생한 악취를 저감해 안산·시화스마트하수 내 대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사업장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노후·불량 하수관로 77.08km 정비, 공공하수도 보급이 저조한 지역인 대부도에 공공하수관로 9.23km를 신설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 지반침하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하수관로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효율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으로 79억원 예산 절감 성과 거둬 안산시는 지난해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관리대행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감독을 통해 관리대행비 68억원을 절감하고 공공하수처리장 배출가스 저감으로 탄소배출권 구입예산 11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간 안산시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및 대기개선과 처리시설 공정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한 결과로 분석된다. 노후화된 하수관로로 인해 발생되는 대형 지반침하를 예방하고자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총 길이 63.9km 구간을 정비

할 예정이며 이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단계 30.6km 구간의 정비공사는 작년 6월 착공했으며 2단계 33.3km 구간은 올해부터 추진한다. 또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공사를 위해 국비 231억원을 확보해 실시시설계용역을 착수했으며 1단계는 2023년, 2단계는 2025년에 각각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처럼, 안산시는 노후하수관로 개선과 효율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국·도비 확보 노력으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물 순환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추진에 탄력을 얻게 됐다. 시 관계자는 "안산시 발전의 근간인 스마트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하수처리장의 악취포집설비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하수도공사는 시민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반시설인 만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최정무기자

양평군에서는 지난 14일 도시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LH의 지역균형발전 전문관을 위촉했다. LH의 지역균형발전 전문관은 인구감소, 고령화 등 지역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지역의 상생발전을 통한 국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LH 등 3개의 기관이 "지역균형발전 지자체 지원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LH에서 전문 인력을 지자체에 파견해 컨설팅 및 자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위촉된 안유진 지역균형발전 전문관은 지평고등학교를 졸업한 양평출신으로 LH의 충북혁신도시사업단장, 금융사업기획처(취업알파벳)지자관리단장 등을 역임한 도시개발전문가다. 허정문 LH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장은 "도시재생, 도시개발 등 군이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



업을 지역균형발전 전문관을 통해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정문은 양평군은 "현대사회는 인구감소 및 초고령화 시대로 균형적인 도시의 공간 개편이 필요한 때"며 "이번에 위촉된 안유진 전문관과 LH가

이성용기자

언제 어디서나 수원시도서관 통해 전자잡지 볼 수 있다

2021학년도 화성시 그린농업기술대학 신입생 모집

18일부터 원서 교부. 다음달 15일부터 19일까지 접수

수원시도서관, 19일부터 홈페이지·앱으로 온라인 전자잡지 서비스 개시

"관심 있는 분야의 잡지를 수원시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세요." 수원시민들이 총 215종의 전자잡지를 PC 또는 스마트기기로 언제 어디서든 열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수원시는 시민들의 비대면 자료이용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19일부터 '온라인 전자잡지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번 서비스는 국내에서 발행되는 215종에 달하는 다양한 주제의 전자잡지를 수원시도서관을 통해 열람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원시도서관 정회원에 가입된 누구나 수원시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전자잡지' 서비스를 선택하면 이용 가능하다. '도서관매거진' 앱에서 수원시도서관을 이용도서관으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열람할 수도 있다. 전자잡지는 과학·기술산업, 교양·패션·라이프, 교육·문학, 문화·예술, 시사·경제, 여행·스포츠·취미, 컴퓨터·인터넷 등 전 분야를 아우른다. 최신호는 물론 과월호도 볼 수 있고 키워드 검색으로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거나 주제별 카테고리 분류를 통해 관심분야를 탐독

수원시도서관 전자잡지 서비스 이용안내

원하는 잡지를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열람하세요. 국내 215여종의 다양한 잡지를 PC와 모바일 기기로 한 곳에서 간편하게!

운영일자	2021년 1월 ~ 12월
이용대상	수원시도서관 정회원
※ 주의사항(정회원)	신분증 지참 후 도서관에 방문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구독종수	국내잡지 215종
서비스 내용	215종 시사, 경제, 패션 등 다양한 잡지 콘텐츠 제공 20,000여권 최신호와 과월호도 열람 가능 80만건 잡지 기사 검색 가능 무제한 동시접속 가능
이용안내(PC)	1. 수원시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2. '전자잡지' 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3. 원하는 잡지 선택하여 열람
이용안내(모바일)	1. 수원시도서관 모바일앱 로그인 2. '전자잡지' 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3. 스토어에서 '도서관매거진' 앱 설치(최초 이용시) 4. '도서관매거진' 앱 로그인 페이지에서 '수원시도서관' 선택 5. 수원시도서관 홈페이지 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 후 이용 6. 원하는 잡지 선택하여 열람(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 가능)
문의사항	도서관정책과(031-228-4806)

하기도 용이하다. 수원시는 이번 전자잡지 서비스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도서관 서비스 확대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시도서관 관계자는 "종이잡지와 전자잡지를 병행해 온·오프라

인 도서정보제공을 강화, 일상 속에서 더 가깝게 책과 함께하는 독서환경을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비대면 독서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화성시 농업기술센터가 2021학년도 그린농업기술대학 및 대학원 신입생을 모집한다. 지난해 교육생들의 선호도조사를 통해 생활원예과가 폐지되고 과수과가 신설됐으며 친환경농업과 채소과 농산물가공과 총 4개 대학과정과 대학원으로는 농업경영 CEO과 각 24명씩 선발한다. 교육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1년이며 주 1회 4시간씩 전공과목과 현장학습, 교양과목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교육생과 동문이 함께하는 농업관련 국가기술자격증 과정과 동아리 자체 심화활동도 운영될 예정이다. 대학 과정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가능하며 대학원은 화성시 그린농업기술대학 졸업생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원서는 18일부터 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배부하며 다음달 15일부터 19일까지 농업기술센터 2층 접수처 또는 화성시통합예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난 14년간 총 1천498명의 동문을 배출해 우리 시 농업과 경제의 근간을 이르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개발로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도시민과 함께하는 평생교육기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주기자

기부중은 변화 행복대학

HSA HWAESONG CITY GREEN AGRICULTURAL TECHNOLOGY ACADEMY

화성시그린농업기술 대학·대학원

2021 신입생모집

교육 기간 2021년 3월 ~ 11월(29회)

학과 안내

대학원	농업경영CEO과	매주 화요일 13:30~17:30(4시간) / 인원: 24명
대학	친환경농업과	매주 화요일 13:30~17:30(4시간) / 인원: 24명
	과 수 과	매주 수요일 13:30~17:30(4시간) / 인원: 24명
	채 소 과	매주 수요일 13:30~17:30(4시간) / 인원: 24명
	농산물가공과	매주 목요일 13:30~17:30(4시간) / 인원: 24명

모집 대상

대학원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가진 그린농업기술대학 졸업생
대학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가진 농업인 및 시민

원서 교부

기간 2021년 1월 18일(월) ~ 2월 19일(금)
장소 농업기술센터, 과수기술팀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원서 접수

기간 2021년 2월 15일(월) ~ 2월 19일(금) 09:00~17: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방문접수 화성시농업기술센터 2층 접수처(화성시 장안면 봉우동 880번길 53-20)
온라인접수 화성시통합예약시스템
※ 온라인 접수 시 219(주) 17:00시 이전 접수 분까지 유효

관련 문의 화성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농업인재양성팀 Tel. 031-5189-3649

* 해당 교육은 '이동교육원, 및 '식량학교'를 제외한 장려 대학(원)과정이 아닌 '화성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사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1년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화성시 Hwaesong



봉담2지구 중흥S-클래스 3차

경북도, 온라인 전시수출상담회로 수출길 연다.

대경 자동차부품·기계 전시상담회 참가업체 1월 27일까지 모집

경상북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을 돕기 위해 '대경 자동차부품·기계 온라인전시수출상담회'에 참가할 업체를 1월 27일까지 모집한다. 올해도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출입국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경상북도의 수출주력품목 중 하나인 자동차부품과 기계 분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전시장과 화상수출상담회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비대면 해외마케팅 방식을 도입했다.

해외 현지 구매자는 기존 오프라인 전시장의 모습이 3차원 형태로 구현된 온라인전시관에서 참가기업들의 제품을 동영상이나 홍보물을 통해 직접 살핀 뒤 자사에서 편하게 화상 상담을 신청하게 된다. 도내기업 역시 3월 15일 ~ 3월 19일까지 5일간 자사 또는 대구무역회관에 마련된 공간에서 온라인전시관의 가상 시스템을 활용해 사전에 일정을 조율한 후 해외 바이어와 일대일 수출상담을 진행한다. 경북도 수출기업

20개사, 대구시 20개사 정도가 참가할 예정이고 해외 바이어는 현지 자동차부품 및 기계 분야 협회나 단체 등을 통해 유럽과 미주, 아시아 지역 바이어들을 40명 정도 온라인으로 초청할 예정이다.

'대경 자동차부품·기계 온라인전시수출상담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도내기업은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국제통상팀 또는 한국무역협회 대구경

북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된다. 배성길 경북도 일자리경제실장은 "경북도와 대구시가 힘을 모아 선제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해외마케팅 방식을 선 개척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로 인한 수출장벽을 허물고 비대면 시대에 적극 대응하는 미래지향적인 사업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할인 받고 삼국유사 테마파크 가자

10만원 이상 구매고객 삼국유사 테마파크 입장권 증정

경북 군위군 대표 농산물 소평물 '아이군위'가 신축년 새해 설맞이 특별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18일 밝혔다. '아이군위'는 언택트 시대에 군위지역 농가와 기업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소개하고자 운영하고 있으며 농산물 및 가공품 등 118개 업체가 입점해 805개 품목의 우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신축년 설맞이 특별 이벤트는 1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2일간 신규가입 회원 세뱃돈 쿠폰은 물론 최대 20% 할인된 가격과 덤 행사가 있다. 특히 10만원 이상 구매고객은 지난해 7월 개장해 8만명이 다녀간 군위군의 명소 삼국유사 테마파크 입장권 2매를 증정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와 우수한 제품을 준비해 설 선물에 필요한 소비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김기덕 군위군수 권한대행은 "군위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착한 가격에 만날 절호의 기회"이고 "아이군위와 함께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세기기자



휴대용 부탄가스 화재, 최근 2배 증가. 주의 당부

5년간 화재 25건 인명피해 17명 발생, 일반화재보다 위험성 높아.

경북소방본부는 최근 도내 캠핑장에서 휴대용 부탄가스용기를 화기가 가까이 두었다가 폭발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북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북에서 휴대용 부탄가스 사용 중 발생한 화재는 25건으로 인명피해는 17명, 재산피해는 1억 2천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5건 발생하던 화재가 2020년에 8건, 2021년 1월 현재 2건이 발생하는 등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화재 원인으로서는 휴대용 부탄가스 용기 가스 누출 44%, 사용상 부주의의 36%, 방화 16% 순이며 부주의의 화재는 음식물 조리, 기기 사용 부주의, 용기 잔류가스 폭발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는 주택 44%, 자동차 20%, 식당·숙박시설에서 16% 순으로 발생했다. 특히 주택에서 발생한 11건의 화재에서 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는 화재 발생 시 순간적인 가스폭발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야외에서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캠핑장, 캠핑차량에서 발생한 화재가 2016년 ~ 2019년까지 평균 3



건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6건이 발생했다. 이중 3건은 휴대용 부탄가스에 의해 발생한 화재로 부탄가스의 화력이 약해지자 부탄가스 용기를 대우기 위해 화기 옆에 가까이 두었다가 발생했다.

일반화재에 비해 휴대용 부탄가스 화재는 10배나 높은 68%의 인명피해 발생률을 보이고 있어 발생건수는 적지만 위험성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휴대용 부탄가스용기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용기를 화기 가까이 두지 않기 화기와의 연결 부위가 정상적으로 결속되었는

지 확인 화구보다 큰 가열 용기 사용 금지 사용 후 반드시 용기와 분리해야 한다. 또한 용기를 버릴 때 잔류가스가 남지 않도록 용기에 구멍을 낸 후 분리수거를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김중근 경북소방본부장은 "휴대용 부탄가스는 대부분 부주의에 의해 많이 발생하므로 사용자 스스로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일 계속되는 한파에 도민들이 안전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경북소방도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동희기자

성주군, 고든 처치 주부산 미국 영사와 상호 교류·협력 논의

성주군은 15일 고든 처치 주부산 미국 영사가 방문해 한미 교류 증진 및 상호협력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고든 처치 영사는 지난해 8월 취임한 이래 영남권과 제주 지역의 관광 주요 지자체를 틀들이 예방하며 교류의 장을 마련해 오고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주한 외국 영사로는 처음으로 성주군을 방문한 고든 영사를 환영하며 '깨끗한 성주 만들기' 운동으로 유명한 친환경 정정 성주군에서 올해 첫 출하된 참외를 선보이며 환담을 나누었다.

코로나 시대 최고의 면역력을 자랑하며 이미 국민과일로 자리매김한 성주참외는 고든 영사도 어릴 때부터 좋아했었다며 전세계적인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는 성주군의 선제적인 방역노력과 '성주애 먹·자·쓰·놀'이라는 독창적인 경제회복 시책을 자랑스러워했다. 또한 국내외에서 언택트 관광지로 더욱 주목받고 있는 가야산, 성주호, 성밖숲, 성산동고분군, 한개마을 등 성주군의 문화관광자원을 소개하고는 "성주군의 기업제품, 농특산물의 수출 판로 개척 등 무역 파트너로서 뿐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 교류에도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고든 처치 영사는 환대에 감사를 전한 뒤 양측의 우호협력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미국은 한국의 주요 동맹국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굳건한 동맹을 이어나오고 있으며 신축년 하얀 소의 해를 맞아 성주군과 교류의 첫 포문을 열 만큼 앞으로의 적극적인 교류가 기대된다.

최만식기자

www.yyg.go.kr

FOOD

Natural Food From Yeong Yang To You

자연이 살아 숨쉬는 영양에서 전국 최고의 농·특산물을 만나보십시오

영양군 YEONGYANG-GUN

영양을 맛보다

해마다 서울광장을 붉게 수놓는 명품 영양고추에서, 당도 높은 사과와 자연이 길러낸 온갖 농특산물까지 기다려오신 내추럴 푸드를 만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땅의 가치, 우리 것이라는 자부심, 믿고 먹는 품질로 영양만점 대한민국의 식탁에 영양군민이 함께합니다.

믿고 먹는 영양군 농특산물 시리즈

대한민국 명품 으뜸영양고추 · 산간고랭지 영양예실천사과 · 아삭아삭 시원달콤 영양배 · 피부미인 영양복숭아 · 저농약인증 영양포도 · 해발 1,219m 영양수박 · 비타민 단단 영양고랭지채소 · 신에서 나는 고기 영양더덕 ·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영양바섯 · 전국 생산량 70% 영양천궁 · 고랭지 무공해 영양감공 · 맘으로 기른 영양일뽕배

ida INTERNATIONAL DARK SKY ASSOCIATION

citruslow

영양군농업지원센터

전라북도, 지역민재능을 활용한 농어촌 일자리 창출 추진

귀농귀촌 증가, 농촌에서의 활동욕구 증가 → 일자리 수요 발생

전라북도가 농어촌 지역민의 다양한 재능을 활용해 사회적·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어촌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농어촌 일자리는 도심지역과 달리 단기간·계절적 일자리가 많고 근로 여건이 열악해 민간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농촌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원인으로 지적되곤 했다. 이에 전북도는 최근 귀농귀촌 증가와 반농반*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춰 농어촌 활력화의 새로운 대안으로 농어촌 일자리플러스센터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농어촌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재능은행 구축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사업추진 등 공공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전북도 센터와 군산시, 완주군, 임실군, 부안군 등 4개 시군 센터가 운영됐고 올해에는 마을마을*의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전주시와 무주군 센터가 추가로 신규 운영된다. 우선, 전북도와 각 센터는 농어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재능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이를 일자리와 연결하는

농어촌 일자리·일거리 은행 구축과 시군별 특화 사업을 추진한다. 전북도 일자리센터는 14개 시군 일자리 통신원을 통해 특색 있는 일자리·일거리 발굴과 지역민의 재능과 경력·경험 등을 조사해 농어촌 일자리·일거리 은행을 구축했다. 현재 조사된 일자리는 기업체와 경영체 1,105개소, 구직자는 2,619명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어촌 기업체와 재능·역량을 갖춘 지역인재를 연결해 침체된 농촌지역의 활력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6개 시군 센터에서는 도 센터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특화 사업을 진행한다. 완주군 센터는 농가에 직접적으로 인력을 지원하는 '인력지원단' 운영과 사회적 농장을 통한 프로그램 보조 일자리 창출하고 임실군 센터는 청년의 스마트 창업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육성' 사업과 시니어클럽 등 사회단체 공동체 참여 알선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 군산시 센터는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부안군 센터

는 귀농귀촌 창업지원, 전주시 센터는 도시농업 활성화, 무주군 센터는 청년 창업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도는 농어촌 일자리 연계사업으로 농어촌현장견학체험과 자격과정 이음, 사회적농업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농어촌현장견학체험은 지역주민과 귀촌인,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촌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성공한 마을 경영체와 농장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하며 향후 지역에서 취·창업에 꿈꿀 수 있는 일자리 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한국농수산대학 20명, 도내 농촌계열학과 2명이 견학 체험을 했으며 올해에는 취·창업을 희망하는 지역민에서 귀촌인까지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구직자의 다양한 욕구도 반영해 참여하는 마을 경영체와 기관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또 다른 농어촌 일자리 연계사업인 자격과정 이음은 자격증을 소지한 지역민을 대상으로 자격증 활용 기회를 제공해 취·창업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생생마을대학에서 마음

원예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한 수료생이 지역민을 대상으로 강의 프로그램 전문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올해는, 역량강화 교육사업을 수료한 지역민이 취·창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상 확대와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래형 농업인 사회적 농업·농장에서 새로운 농촌 일자리를 모색하는 사회적농장 활성화 사업은 지난해 시범사업 청년, 지역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향후, 교육·돌봄 및 생활서비스 등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 농어촌 지역에서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어촌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재능과 경력을 바탕으로 일자리를 찾는 지역민과 지역인재를 찾는 기업체를 중개함으로써 농촌 활력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정읍시, 2021년도 학교급식 지역생산 가공식품 공급업체 모집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최선, 지역경제 활성화

정읍시가 지역 내 학교를 대상으로 지역생산 가공식품을 공급할 자격업체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장류와 두부류, 묵류, 떡류, 기름류, 고춧가루, 유제품, 과일 가공품, 절임류, 김치류, 죽류, 수프류, 소세지류 및 쌀 가공품 등 14개 품목군이다. 공급업체는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1년간 지역 내 초·중·고교 학교급식에 가공품을 납품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정읍시에 제조공장을 두고 상기 품목군을 지속적으로 공급 가능한 업체다. 또한, 관련 법규에 의한 인허가 또는 영업 신고증 등 학교급식 납품 자격과 정읍시에서 정한 자격조건을 갖추어 하며 정읍산 원재료를 6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단, 계

절적으로 정읍산 원료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품목은 도내산 원료 사용이 가능하다. 시는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 서류심사와 현장평가 등을 통해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적격업체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지역생산 가공식품 공급업체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농업기술센터 농수산유통과 농식품가공팀에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 등 우수한 지역생산 농산물을 공급해 소비자인 학생과 생산자인 농업인, 지역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길라잡이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하은/기자

완주군, 사회적 농업의 중심지로 발돋움

농식품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3개소로 최다 선정

사회적경제 진화도시 완주군이 사회적 농업 분야에 있어서도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18일 완주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한 2021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신규 사업자로 영농조합법인 품드림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완주군은 기존 사업자인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치울협동조합과 함께 전국 최다인 총 3개소의 사회적 농장을 운영하게 됐다. 사회적 농업은 장애인, 노인, 아동, 귀농·귀촌인, 범죄피해 가족 등 지역 사회에서 소외 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농업 활동을 기회를 제공해 돌봄·교육·고용·힐링 등의 효과를 창출하고 나아가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통합하는 활동이다. 완주군은 지난 2018년부터 사회적 농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튼튼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독거노인, 주간보호노인, 다문화가족, 보육원 보호청소년, 초보귀농가족, 발달장애아 가족, 성인 장애인 참여하는 총 7개의 사회적 농장이 활동하고 있으며 참여자는 150여명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지역의 사회적 약자들의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철저한 방역기준을 준수하면서 사회적 농업 활동을 추진해왔다. 또한 코로나 블루로 고통 받는 의료진,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코로나 블루 극복 프로그램을 추진해 코로나 블루 극복에 기여하기도 했다. 신규로 선정

된 품드림 영농조합법인은 향후 미혼모 가족, 장애청소년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추가해 총 9개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농업의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타 부처 정책과 연계해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의 질적 성장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완주군 역시 사회적 농업 포럼을 통해 사회적 농업 추진 주체를 발굴하고 지역사회 전반으로 사회적 농업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와 취약 계층 일자리 문제를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농업은 이제 생산 중심에서 사람과 가치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회적 농업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 사회적 농장이 지역 공동체 커뮤니티 케어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도내 전지역 대설특보 발효에 따른 긴급대책 추진

도내 주요 출근길 및 등굣길 등 교통혼잡대비 제설작업 실시

현재 도내 14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오후 6시까지 3~8cm의 추가적인 눈과 함께 강추위가 예상됨에 따라 전북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해 교통혼잡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8일 동안에 고창군 최대 9.8cm, 순창군 7.2cm 등 도내 평균 4.8cm의 적설을 기록하고 있다. 기상청은 18일 오후 6시까지 전라북도 도내에 3~8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18일 08시 현재까지 인명과 재산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 또한, 19일 아침 최저기온이 진안, 장수 -14℃를 비롯해 대부분지역이 -9 ~ -14℃로 머물것으로 예상되어 내린 눈이 얼어 빙판길이 예상됨에 따라, 도는 이번 대설기간 동안 제설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근길 및 등굣길 안전을 위해 도로결빙 예상구간에서 전 시군이 제설작업 실시했고 공공기관 별도 출퇴근시간을 조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했다. 17일 밤부터 18일 새벽사이 제설장비 290대, 인력 437명, 제설제 1,442톤을 투입해 455개 노선의 제설작업을 실시했으며 민간제설장비도 동원해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

고 있다. 또한 원격으로 제설제를 살포할 수 있는 33곳의 자동제설장치를 운용 중이다. 또한 출퇴근길 교통혼잡을 대비해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가스공사 등에서 출근시간을 1시간 정도 늦추어 운영했다. 아울러 한파에 대비해서도 취약계층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우선 인명피해 예방 최소화를 위해서 노약자, 어린이, 만성질환자의 야외활동 자제 등을 문자 발송 21회, 마을 방송 7개소를 통해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또한, 온열의자, 방풍시설 등 한파저감시설을 운영하고 독거노인 등 한파 취약계층에 대해 재난도우미 등을 통해 방문·전화 안부확인 등 실시도 했다.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사 등 적설취약구조물에 대해서도 수시로 눈 쓸어내림으로 붕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지도도 강화했다. 전라북도 김광원 도민안전실장은 "지금 겨울 잦은 적설과 한파로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면도로 등 결빙구간 제설·제빙을 신속히 실시하고 취약계층 안전관리에 최선 다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승일/기자



담양 농특산물 온·오프라인 전문 판매장 '담양장터 몰' 개장

설맞이 전 구매고객 '대숲맑은 담양 쌀' 증정, 전 품목 10% 할인행사도 병행

전남 담양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담양장터 몰'이 문을 열었다. 담양군은 18일 담양농업관 1층에 지역 농특산물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담양장터 몰을 개장했다고 밝혔다. 담양장터 몰은 코로나 19로 인한 온라인 소비문화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농특산물을 온·오프라인을 판매하는 전문 판매장이며, 한과, 장류, 참기름, 전통주, 떡갈비, 죽조차 등 지역 47개 업체에서 생산된 300여 품목을 전시 판매한다. 개장을 기념해 전 품목 10%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설맞이 전 구매고객에게 전년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한 '대숲맑은 담양 쌀' 500g을 증정한다. 담양장터 몰은 지난해 6월부터 담양장터 판매장 운영을 위해 지역 농식품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3차례 개최했으며 98%가 찬성해 관내 농식품가공업체가 담양장터 주식회사법인을 설립했으며 담양군의 지원을 받아 판매장을 운영한다. 아울러 군은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와 연계한 담양장터 홈페이지를 오는 2월까지 개설하고 우수품목에 대해 군수 품질인증제 상비



포장재 디자인 개발 온라인 마케팅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 온라인 동영상 제작 라이브 쇼핑 판촉 흡수판 판매 등을 지원해 담양장터 몰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형식 군수는 "담양장터 몰은 담양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소비

오홍곤/기자

임실군, 2021년 경관조성 사업 본격화

각종 경관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발주, 2월 까지 완료

임실군이 지역민에게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경관조성사업에 본격 착수했다.군은 올해 추진되는 각종 경관조성사업의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시행되는 설계용역은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쌈지화단 조성 예정지의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경관을 디자인하는 등 특색있는 지역 경관 조성을 목표로 한다. 설계용역 과업에는 대상지 조사 및 현황분석, 지역특성 및 잠재력 분석, 지역에 맞는 수종 및 조경식물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할 예정이다. 또한 설계단계부터 도시림 분야 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도시림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적 의견과 자문을 받고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군은 2월까지 각 사업의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설계 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총사업비 약 7억원을 투입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하은/기자



행복주택 선물, '발달장애 엄마·아들·딸' 희망 쌓기

50년 경과한 흙집 허물고 조립식 주택 신축

엄마와 아들, 딸 모두가 발달 장애인인 한부모 가정 식구들이 50년이 경과한 노후 흙집에서의 힘겨웠던 삶을 정리하고 전국 각지의 후원자 4,000여명이 준비한 행복주택에서 새 희망 쌓기에 나선다. 18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대촌동 외딴 곳의 낡은 흙집에서 생활하던 장애인 A씨와 B씨, C씨 가족은 최근 새 보급자리로 조립식 주택을 선물 받았다.

이들 가족이 머물던 집은 흙으로 지어진 노후 주택인데다, 지난해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심각한 균열과 파손 등이 발생해 주거생활에 위협을 받는 상태였다.

특히 벽이 무너져 내려 주방에 큰 구멍이 생겼고 이 구멍으로 길집승이 드나드는가 하면 녹이 손 싹크대와 곰팡이 등 주방 환경도 매우 열악해 온전한 식사마저 불가능했다.

또 집 천장과 바닥이 내려앉으면서 붕괴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A씨 가족은 주택 붕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이곳을 떠날 생각도 없었다. A씨가 남편과

함께 이곳에서 보냈던 추억을 가슴 깊이 묻어두고 있었고 사별 후 마을 인근에 마련된 남편의 묘소를 매일 같이 찾다니며 보살피는 게 삶의 유일한 즐거움이었던 때문이다.

사연을 접한 대촌동 행정복지센터와 구청은 10여년 전부터 A씨 가족을 끈질기게 설득했으나 진척은 없었고 지난해 6월 재차 설득하는 과정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구청과 남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엠마우스 복지관은 협업을 통해 이들 가족의 이주대책을 마련했고 낡은 흙집이 있던 자리에 조립식 주택을 새롭게 지어 이들 가족에게 제공했다. 조립식 주택을 짓기까지 구청에서는 석면 슬레이트 폐기물 철거 등 행정 및 사례관리 지원에 나섰고 남구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원주택사업을 통한 임시거주지 및 임대료 지원, 해피빈 모금함을 개설해 전국 각지에서 도움을 준 4,000여명의 후원자로부터 성금 995만원을 모으는 결실을 맺었다.

또 엠마우스 복지관에서는 A씨 가

족의 금전 관리를 도맡아 지원했으며 아들 B씨는 복지관 도움으로 취업에 성공해 직장인의 삶을 살고 있다. 김병내 구청장은 "엄마와 아들, 딸이 따뜻한 보급자리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더욱 더 행복한 복지 남구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덕윤/기자



나주시, 고령친화도시 그림공모전 수상작 발표

노인인식개선 캠페인 청소년 그림공모전 ... 세대 간 인식 격차 해소 및 공감대 형성

나주시가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세대 간 인식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한 '노인 인식개선 캠페인 청소년 그림공모전' 수상작을 선정했다. 18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노인 이미지를 그림으로 표현, 이를 매개로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우리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의 꿈과 도전',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다면'이라는 주제로 지난 해 12월 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됐으며 초·중·고교 부문별 총 55점의 응모작이 접수됐다.

시는 최근 미술 전문가,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계자로 구성된 공모전 심사단의 블라인드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수상작 20점을 선정했다. 심사 결과 빛누리 초등학교 2학년 홍수형 학생의 '화가 할아버지'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작품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고령친화도시 조성 가치에 부합하는 활기찬 노인의 이미지를 순수하고 창의적인 시각에서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에는 능주고 3학년 김가영 학생의 '현재와 미래의 나의 모습', 문평초 6학년 윤은나 학생의 '우리도 아직은 꽃', 라온초 3학년 박연우 학생의 '내가 할머니가 된다면'이 각각 선정돼 작



품을 인정받았다. 시는 수상자들에게 부문별 상장과 소정의 나주시 상품권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작품들은 청사 본관 로비에 전시되며 올 한 해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노인인식개선 캠페인 홍보자료로 활용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지역 어르신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그림 속에 투영된 긍정적인 이미지를 통해 세대 간 소통하고 공감하는 기회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활기찬 노년을 위한 건강, 사회 참여, 안전 분야 최선의 환경을 조성하고

어르신과 더불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나주 조성에 최선을 다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는 지역사회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 주민의 욕구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올해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19년 10월 전국 12번째이자 전라남도 지자체 중 첫 번째로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회원에 가입, WHO 가이드라인에 바탕을 둔 8개 영역 55개 과제를 추진해오고 있다.

김영민/기자

설 선물은 만남 대신 '완도 특산물'로 마음 전하기

완도군이 이송 설 명절 기획 상품 구입 시 5천원 할인쿠폰 제공

완도군은 코로나19로 인해 다가오는 설 명절 가족, 지인과의 만남이 줄어들면서 대신 선물을 보내는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완도 특산물 온라인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벤트는 18일부터 진행되며 완도군 특산물 소포몰인 '완도군이송' 명절 기획관에서 할 전복 세트와 수산물 세트를 최대 15%까지 할인 판매한다. 할 전복 가격은 기획전 참여 업체별로 할인율이 다르다. 김, 미역, 다시마, 멸치 등으로 구성된 수산물 세트는 수산물 종류와 중량에 따라 2만 2500원부터 6만 8000원까지 다양한 상품이 준비돼 있다. 완도군이송에서 기획 상품 구입 시, 5000원 할인 쿠폰을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최대 15%까지 할인된 가격에 5천원 할인 쿠폰이 바로 적용되는 중복 할인으로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우수한 완도산 특산물을 구입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18일부터 우체국 소포물 내 완도군 브랜드관을 개설해 전복과 해조류 등을 최대 10% 할인하는 행사도 실시한다. 이번 설 명절 수산물 할인 행사는 2월 8일까지 진행된다. 완도 대표 수산물인 전복은 '바다



의 산삼'이라 불리는데, 타우린과 아르기닌 함량이 풍부해 원기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탁월하다. 코로나19로 인해 면역력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지난 추석에는 완도군이송의 전복 판매량이 2019년 추석 기간 대비 61%나 증가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

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와 소상공인을 돕고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며 "이번 설 명절은 가족, 지인과의 만남 대신 건강에 좋고 맛도 좋은 완도 수산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영욱/기자

새콤달콤 영암딸기, 풍부한 영양까지~

시종 등 8개 농가에서 12월부터 딸기 수확

북극한파를 극복하고 전례의 환경에서 정성껏 가꾼 새콤달콤하고 영양도 풍부한 영암딸기 수확이 한창이다. 과거 딸기의 제철은 봄이었지만 최근 겨울철에도 수확량이 많은 우수한 국산 품종의 개발과 농가 보급 확대로 겨울철 가장 맛있는 제철 과일로 각광받고 있다. 영암딸기는 비옥한 토지와 풍부한 일조량 등 작물재배 최적의 환경에서 총 8농가가 4ha면적에서 재배하고 있으며 귀농인 등 젊은층 위주로 딸기재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딸기 재배 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암딸기는 친환경자재 사용 및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을 통해 안정성과 품질이 검증되어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영암의 딸기 재배농가들은 작업이 편리하고 생력적인 고품질 관리 재배농법인 고설재배를 통해 딸기를

재배해 등급별로 1kg당 1만원에서 1만8천원대에 판매하고 있다. 딸기는 레몬의 2배, 사과 10배가 넘는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으며 딸기 속에 함유된 비타민C는 감기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도 탁월한 효능이 있다. 특히 딸기의 상징인 붉은색을 내는 라이코펜은 면역력을 높이고 노화를 예방하는 데 좋다. 또 자일리톨 성분이 있어 입안을 상쾌하게 하고 잇몸을 튼튼하게 해서 치주염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암군은 전년도에 소득효과가 큰 딸기의 집중 육성을 위해 군 자체사업으로 코로나19 대응 수출농산물 긴급지원 사업을 추진해 총사업비 64백만원을 들여 13만주의 딸기묘목을 지원했으며 올해 생산시설 확충을 위해 총사업비 153백만원을 투입해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남출/기자

사용이 편리한 「나주사랑카드」 상품권 출시

- ▶ 발행시기 : '20.9.1.부터
- ▶ 카드신청 - 한국조폐공사 앱(chak) - 관내 농협 방문
- ▶ 발행종류 : 충전식카드
- ※ 스마트폰, 신분증, 계좌번호

- ▶ 충전한도 : 월 70만원
- ▶ 사용처 :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 ▶ 좋은점 - 사용자에게 10% 할인
- 직장인 소득공제 30%
- 휴대폰에서 충전가능 등

-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339-8822

천안시, 소상공인 심폐소생으로 지역경제 살린다

누락된 소상공인 없도록 버팀목자금도 적극 홍보...집합금지 업종 최대 300만원 지급

천안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심폐소생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먼저 지역 내 소비촉진을 견인하고 소상공인 매출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천안사랑카드'는 올해도 다양한 이용편의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천안사랑카드 회원수는 현재 13만2,032명으로 이용 활성화를 높이기 위해 발행 규모를 지난해 1,300억원에서 올해 2,000억원으로 확대 발행한다. 캐시백 10% 혜택도 오는 6월까지로 연장했다.

한 달간 50만원 한도 내에서 천안사랑카드로 결제하면 5만원의 캐시백을 돌려받을 수 있어 1월부터 6월까지 매월 50만원을 사용할 경우 30만원을 다시 받을 수 있다.

50만원부터 100만원까지는 그대로 1% 캐시백을 지급한다. 또 지난해와 달리 올해 천안사랑카드의 부가서비스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간편히 앱에서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기부를 실천할 수 있는 기부서비스와 시내버스 교통카드 기능의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어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금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인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올해 지원자격을 완화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지난해까지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장의 주소지와 사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모두 천안이어야만 했으나, 지난해 '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모든 지원대상의 기준을 사업장의 주소지로 변경했다.



이에 사업장이 천안시에 위치한 소상공인은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례보증 출연금은 211억원으로 확대돼 2,500억원의 용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에는 39억원의 출연금을 통해 468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시는 이같이 천안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발급해 최대 5,000만원까지 금융권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오는 20일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시는 지난 11일부터 정부에서 지급 중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2020년 11월 24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방자치단체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아 이행한 소상공인과 매출감소 일반업종 소상공인이다.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은 300만원, 식당·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이 지원된다.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19년 대비 2020년 연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이 지급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지원대상 소상공인은 1차 신속지급 대상으로 온라인 전용사이트 '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증빙자료가 필요한 확인지급 지원대상 소상공인의 경우 증빙자료 확인 후 2월부터 지급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천안형 공공배달앱 구축 사업' 등 시대변화에 맞는 시책과 코로나19 방역의 선제적 대처로 소상공인은 물론 시민들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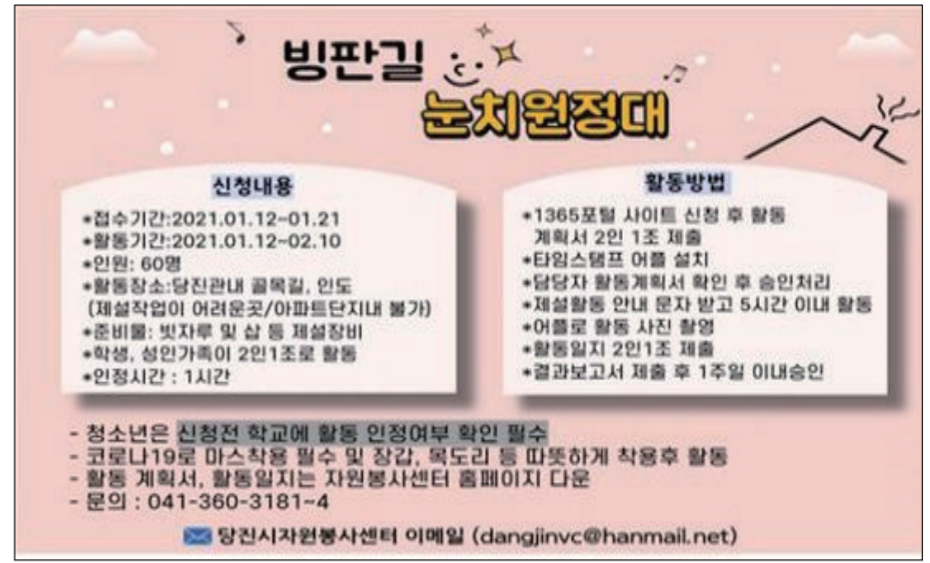
김원호/기자

눈 내리는 날은 자원봉사를 '빙판길 눈치원정대'

제설차량 진입 어려운 골목길과 인도, 시민이 직접 제설

당진시자원봉사센터가 겨울철 폭설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민들이 직접 제설작업에 참여하는 '빙판길 눈치원정대'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빙판길 눈치원정대' 프로그램은 제설차량작업이 어려운 골목길과 인도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과 성인이 2인 1조를 이루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1365를 통해 접수한 자원봉사자들이 활동계획서를 제출하면 당진시자원봉사센터에서 눈이 내린 날, 제설활동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문자 접수 후 5시간 안에 활동할 진행해 활동 후 일지를 제출하면 봉사활동 1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오는 21일까지 1365 포털사이트를 통해 접수 받으며 제설활동은 이번 달 1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당진시자원봉사센터는 SNS 문자안부 릴레이, 쓰레기 총량 줄이기 캠페인 등 비대면 사업을 개발해 코로나 시대에 도

당진시민이 안전하게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원호/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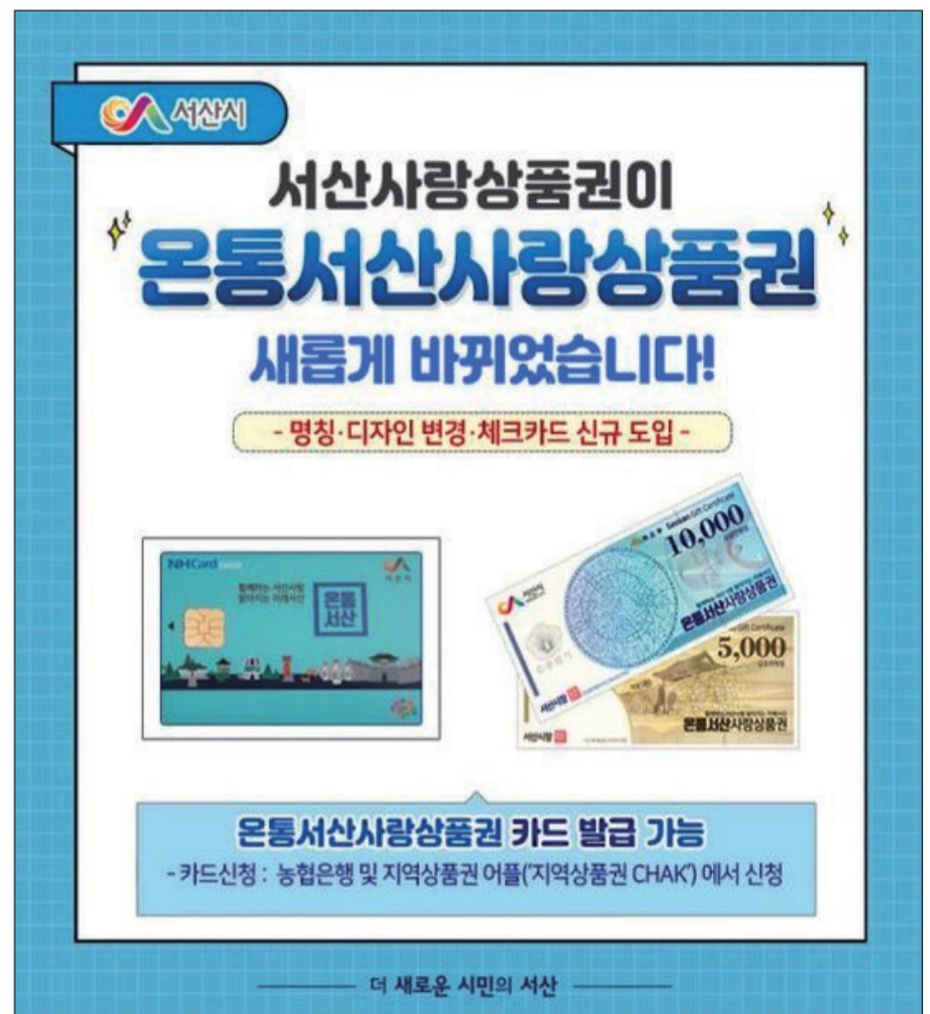
서산시, '온통서산사랑상품권'으로 지역사랑 실천하세요

기존 '서산사랑상품권' 명칭과 디자인 달라진다

서산시가 올해부터 지역상품권인 '온통서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2019년부터 발행해온 기존 '서산사랑상품권'의 명칭이 변경된 것. 기존 명칭에 서산시 고유 브랜드인 '온통서산'의 '온통'을 붙이고 디자인도 시 정체성을 반영해 특색있게 변경했다. 5천원권에는 서산 9경 중 1경인 서산해미읍성이, 1만원권에는 국보 228호인 천상열차분야 지도가 그려진다.

천상분야열차지도 - 석판에 새긴 천문도로 천문학자인 류방택 등 12명에 의해 만들어졌기. 기존 서산사랑상품권은 그대로 사용가능하다.

시에 따르면 지역상품권은 2019년 700억원을 발행해 완판했고 2020년 700억원을 발행해 99.3%를 판매하는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온통서산사랑상품권'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00억원을 발행한다. 변경된 지류형 '온통서산사랑상품권'은 오는 25일부터 관내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를 통해, 모바일상품권은 '지역상품권 chak' 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추가된 것은 올해부터 디지털 약자 편의를 위해 카드형 상품권도 발행한다. 카드형 상품권은 관내 모든 농협은행 및 '지역상품권 chak'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올해 새롭게 발행되는 온통서산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을 갖고 이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주차불편 끝 세종전통시장 주차타워 첫삽

71면에서 154면으로 주차공간 확대, 오는 12월 완공 목표

세종특별자치시가 조지원을 세종전통시장에 건립할 주차타워 설계를 마치고 18일 본격 착공에 들어간다. 새로 들어서는 주차타워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며 국비 36억원 포함 총 사업예산 101억원을 투입해 지상 5층, 연면적 5,260㎡ 규모로 건립된다. 주차타워는 시장 일대 붐비는 주차수요를 충족시키고 기존 주차장보다 83면을 확장한 총 154면을 확보했으며 시장과 연계한 지역 쉼터 기능과 서비스 기능이 더해진 복합주차공간으로 조성된다.

입산부, 여성전용주차를 배치했으며 주차통로 폭을 넓게 조성해 모든 층을 왕래하는 운전자들의 편의를 고려했다. 공공건설사업소는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설 명절 기간 중 주차타워 사업부지 내 주차장을 개방할 예정이다. 안기는 공공건설사업소장은 "시장 방문객과 상인들 전통시장과의 매개공간으로써 건설하고 안전하게 시공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며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신축년 새해, 제천에서 태어났“소” “고향에 기쁜소식 전하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

새해 첫 날 셋째아 출산으로 지원금 4천만원 1호 제천시민 탄생

박항서 감독 산청군 깜짝 방문... 가족과 시간 보내



전국 최초, 제천시가 인구 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제천시 3

전달하며 새 생명 탄생에 의미를 더 했다. 이날 박씨는 “아내와 그토록 기다리던 딸이었지만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금과 세아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가장 걱정이었다”며 “제천시에서 올해부터 추진하는 4천만원의 주택자금을 지원 받게되어 든든하다”고 말했다. 기존 지원 제도의 틀을 깨고 획기적으로 추진하는 “3패한 주택자금 지원 사업”

은 주택자금지원과 출산자금지원 두 가지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다. 먼저, ‘주택자금지원’은 결혼 후 5천만원 이상 주택자금대출을 받은 가정에서 신생아 출산 후 지원을 신청할 경우 첫째 150만원 둘째 최대 1천만원 셋째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셋째아까지 출산 시 최대 5천150만원까지 대출금을 갚아줌으로써 살 집을 구하기 어려워 결혼을 꺼리는 청년들이 결혼에 성공하고 자연스럽게 출산으로 이어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자금 대출을 받지 않은 가정에서 신생아 출산 후 신청할 수 있는 “출산자금지원”은 첫째 120만원 둘째 8백만원 셋째아 이상 3천2백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상천 시장은 “상서로운 기운이 물씬 일어나는 신축년 새해에 모든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란다”며 “올 한해 제천시에 아이의 탄생을 소리가 가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향에 계신 많은 분들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이다. 힘이 돼 드릴 수 있도록 기쁜소식을 전하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 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이 18일 산청군청을 깜짝 방문했다. 박 감독은 지난달 29일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귀국했다.

남궁영기자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자마자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산청을 찾은 박 감독은 이날 이재근 산청군수와 심재화 산청군의회 의장 등을 만나 환담을 나눴다. 박 감독은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월드컵 등 큰 대회들이 많이 예정돼 있다 우리 베트남 축구대표팀은 올해 처음으로 월드컵 최종 예선 진출을 이뤄내기 위해 담금질을 하고 있다”며 “내 고향 지리산 청정골 산청군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박 감독은 1월 말 베트남으로 돌아가 본격적으로 월드컵 예선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근 산청군수는 “베트남 대표팀 선수들이 박항서 감독을 ‘아빠’로 부른다고 들었다. 박 감독의 책임감과 열정은 물론 진심을 다한 애정이 지금의 베트남 축구를 성장시키고 있다”며 “앞으로도 혈계의 나라 베트남과 대한민국, 우리 산청군을 연결하는 교두보가 돼 달라”고 응원했다.

강진군민장학재단, 줄이은 기부소식으로 감동 전해

강진군게이트볼협회 250만원,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 200만원, 박평오 법무사 100만원 장학금 기탁

강진군민장학재단이 새해부터 연이은 기부소식을 전하며 감동을 전하고 있다. 지난 14일 강진군게이트볼협회가 250만원,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이 200만원, 박평오 법무사가 100만원의 장학금을 강진군민장학재단에 기탁했다. 강진군게이트볼협회는 2016년부터 회원들이 장학금을 십시일반 모아 매년 강진군민장학재단에 기탁을 했으며 지금까지 총 88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손홍식 회장은 “협회원들과 뜻을 모아 지역 취약계층 학생들의 학업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하기로 결정했다”며 “손주 같은 학생들이 꿈을 향해 열정을 다 할 수 있도록 희망의 손길을 보태고 싶다”고 전했다. 2011년에 설립된 ICT 융복합 스마트 농장인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은 2012년, 2013년에 친환경 축산물, HACCP 인증을 획득하는 등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 사업체로 전라남도 내 양돈농가에서 돼지 22,000여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성전면 예방로에 위치한 성일축산에서는 돼지 1,616두를 사육하고 있다. 이용기 대표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 의욕과 학구열을 고취시키

고 차세대 인재를 양성하는데 동참하고 싶어 장학금을 기탁했다”며 “오랫동안 양돈업에 종사하며 얻은 수익의 일부를 지역 교육 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하다”고 말했다. 박평오 법무사는 광주지방법원에서 법원 사무관으로 퇴직 후 강진을 중앙로에 법무사박평오사무소를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형편이 어렵거나 고령인 군민들에게 법률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2017년부터 총 5회에 걸쳐 총 500만원의 장학금을 강진군민장학재단에 장학금을 기탁했다. 박평오 법무사는 “매년 기탁한 장학금이 학생들에게 원동력으로 작용해 꿈을 펼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기탁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인재를 육성해 강진의 미래가 빛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송욱 이사장은 “강진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 육성을 위해 이렇게 장학금을 기탁해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강진군 학생의 학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장학사업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길기자

광산구, ‘백년가게’ 온라인 시민추천 받는다

20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발굴해 성장 지원, 성공모델 확산

광산구가 잠재력 높은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18일부터 온라인으로 ‘백년가게’ 시민 추천을 받는다. 백년가게는 20년 이상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 가게를 발굴해서 100년 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2019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광산구 백년가게는 현재 6개소이다. 시민이 추천할 수 있는 가게는, 제조업을 제외한 업력 20년 이상 광산구 소상공인 업

체다. 시민 누구나 네이버 폼에 접속해서 추천할 수 있다. 광산구는 시민이 추천한 가게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알려 백년가게로 선정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덕윤기자



“좋은 곳에 써주세요” 소외이웃에 전하는 ‘사랑의 쌀’ 1200kg

기부자 석복희 씨, “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밥 한 그릇 드리고 싶어”



“열심히 일해도 형편 어려운 이웃들이 있어, 그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북구 월곡2동 주민 석복희 씨가 지난 12일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전달해 달라며 철원오대협쌀 1200kg를 기탁했다. 월곡2동 주민이자 대한불교진각종 신도인 석복희 씨는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관내 한부모가, 다문화 가구, 조손가구, 노인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취약가구에 쌀이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말

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개인 후원이기에 더욱 뜻깊다”며 “코로나19와 한파로 너무나 힘든 시기에 우리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준비한 감사장 전달했다. 감사장을 받은 석복희 씨는 눈물을 보였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가슴이 뭉클하다. 주민 모두가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더욱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강성원기자



감동양주
신성장·새지평

함께하는 감동양주

NEW & NEW

새로운 도약, 신성장 활력도시

Yangju
양주시

문화누리카드의 발급 및 사용, 한층 편해진다

지원금 인상, 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자동재충전 등 이용자 편의성 높아지면서 2021년 문화누리카드의 발급과 사용이 한층 더 편해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국민의 문화안전망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된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지급된다. 올해는 복권기금 1261억 원과 지방비 531억원 등, 2020년 대비 약 259억원이 증액된 총 1792억원을 투입해 지난해보다 1만 원 인상된 10만 원을 총 177만 명에게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2020년도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2021년 지원금을 충전해 주는 '자동 재충전' 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기존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중 본인이 '자동 재충전' 대상인지 여부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의 '자동 재충전 대상자격 미리 알아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동 재충전이 이뤄진 대상자에게는 28일과 29일 이틀간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2월 1일 이후에는 고객센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고객센터 및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동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 재충전 대상자가 아니거나 신규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전국 주민센터,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통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금액 10만 원은 2021년 12월 31일 까지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집에서 안전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가맹점('20년 756개)도 지속 확대한다. 음악은 물론 인터넷 영상 콘텐츠, 웹툰, 문화 강습도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즐길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에게는 효도라디오 등 고령층 선호 품목으로 구성된 '전화주문 상품 안내지'를 배포하고,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 꾸러미 등을 지속 지원한다. 그동안 이용자들은 컴퓨터(PC)를 통해서만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어 외부에서 자신 주변의 가맹점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위치기반으로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실시간 잔액 확인 기능도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잔액을 확인할 수 있어 이용자의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더욱 편리해질 예정이다.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과 연계하여 문화누리카드 수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권리구제서비스'도 계속 시행한다. 지난해 '권리구제서비스'를 통해 수혜 대상자 2만 6천여 명에게 문화누리카드 서비스를 안내했고, 이를 통해 8383명이 추가로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받았다. 그리고 그동안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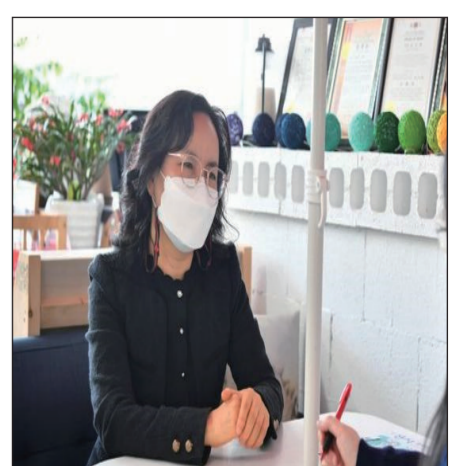
화누리카드를 신청할 때,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 때문에 가정위탁아동의 법정대리인인 친부모와의 연락이 끊어진 가정위탁아동은 수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누리카드를 지원받지 못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만 14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살고 있는 곳이 불분명할 경우 '가정위탁보호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 위탁 부모 등

이 신청할 수 있도록 문화누리카드 사업 지침을 개정했다. 문체부 이진식 문화정책관은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문화생활을 즐기고 문화권을 보장받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며, "문화누리카드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와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포천시, 예술마을의 꿈을 활짝 열다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가 예술마을로 변모하고 있다. 길거리 쓰레기가 사라지고 오래된 회색 벽은 화사한 그림으로 채워졌다. 국내 유명작가들의 작품 개인·그룹 전시회가 열리고 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모임이 생겼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로드마켓으로 지역상권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 침체해 있던 작은 마을에 생겨난 생생한 변화, 그 시작에는 한국화 작가 장수경 씨가 있다. 장수경 작가는 지난 2017년, 중학 시절을 보낸 양문리에 돌아왔다. 처음에는 단순히 그림 작업에 몰두할 장소를 찾기 위해 온 것이었지만 마을을 둘러본 후 생각이 많아졌다. 전체적으로 생기를 잃은 거리가 추억 속의 고향과는 많이 달랐다. 변화가 필요했다. 장수경 작가는 "양문리를,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했다"고 말했다. 마을을 바꾸는 일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가 관건이다. 장수경 작가는 전용 작업실 대신 마을 주민들이 모여 소통할 수 있는 '카페'를 열었다. 카페 이름은 '갤러리카페801'. 간판 그대로 갤러리면서 카페이다. 카페 벽면에 직접 그린 작품을 걸고 누구나 그림을 감상할 수 있게 했다. 지역주민들은 카페에서 자연스럽게 예술작품을 접하며 장 작가의 '가고 싶은 마을 만들기'에 하나둘 동참하게 됐다. 카페건물 2층은 작업실 겸 전시공간인 '양문 아트스퀘어'로 꾸몄다. 그리고 주민주도 마을재생 경험이 풍부한 서양화 작가 김야전 씨를 비롯한 지인 작가들을 양문리에 초빙했다. 작가들과 주민들은 같이 교류하며 마을 발전에 대해 고민했고 '마을에 예술의 옷을 입히자'는 데 뜻을 모았다. 작가·주민공동체 '양문'을 여는 사람들의 시작이었다. 양역사 회원들은 환경을 가꾸는 것부터 시작했다. 마을 분위기를 저해하는 어두워진 컨테이너를 밝고 산뜻한 색으로 칠하고 학교 주변 길거리 벽에 그림을 그렸다. 변화가 생기자 마을 재생에 큰 관심이 없던 주민들도 하나 둘씩 흥미를 갖고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물어보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의 기획전시회도 진행했다. 카페에 전시 월을 설치해 한 달 간격으로 13회의 개인 및 그룹전시회를 열었다. 작가에게는 작품을 소개할 기회가, 주민들에게는 가까워서 예술작품을 접할 기회가 되며 마을 문화 활동에 활력을 더했다. 아트스퀘어 옆에는 미술 아카데미도 생겼다. 예술에 직접 참여해 보기를 원하는 주민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미술아카데미를 통해 양문리 주민들은 회화, 판화, 도예 등 수준 높은 미술작품을 직접 '창작'할 수 있게 됐다. 양문리 외부뿐 아니라 내부에까지 서서히 예술이 스며들었다. 마을에 예술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 장수경 작가는 예술과 주민들의 '경제활동'을 접목할 방법을 고민했다. 도시재생 성공사례로 손꼽히는 일본 오이타현의 유후인, 예술가 마을로 유명한 파주 헤이리 등 국내외 여러 지역을 벤치마킹하며 양문리에 적합한 모델, 방법을 연구했다. 장수경 작가가 떠올린 것은 '로드마켓'. 메인도로에 로드마켓을 열어 작가들이 작품을 팔고 주민들이 직접 사고 기린 텃밭 채소까지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도록 했다. 다양한 물건을 파는 자유로운 로드마켓의 모습이 서울 경리단길의 그것과 같아 해서 주민들은 양문리 로드마켓이 열리는 메인 거리를 '양리단길'이라 부르게 됐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개최하기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내년 봄부터는 매주 토요일에 로드마켓을 열어 양문리만의 색깔이 묻어나는 로드마켓을 꾸며갈 예정이다. 장수경 작가는 양문리를 '예술적 잠재성이 살아있는 마을'이라 말한다. 예로부터 풍류인사들의 시심을 자아냈던 것으로 유명한 영평8경 등 뛰어난 자연 요소 뿐 아니라, 흥인군 묘소나 분단의 아픔의 상징인 3.8선 등 역사적으로도 다는 의미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4월에는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도시재생지원센터 협의회에서 주최한 경기도 도시재생 주민참여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고 22일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 제3차 도시재생뉴딜사업 인정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인정사업 공모선정으로 내년부터 3년간 총99억 규모의 '영중 읍파로 38하우스건립사업'이 추진된다. 장수경 작가는 "마을을 같이 만들어나가면서 주변의 오해를 받기도 하고 힘이 빠지는 일도 있었지만, 함께 하는 양문리 회원들과 같이 이겨내며 지금까지 걸어왔다"면서 "쉬운 길이 아님을 이미 각오했다. 어려움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 마을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집중하고 싶다"며 미소지었다.

김영기기자

'TV예능 프로그램'서 소개된 책들, 연초 베스트셀러 상위권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책들이 연초부터 분야별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오르는 등 이른바 'TV 예능 셀러' 바람이 불고 있다. 교보문고는 자사의 1월 둘째 주 베스트셀러인 '나를 부르는 숲'(여행 분야 1위),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시 분야 1위), '요리는 감이여'(요리 분야 1위) 등이 'TV 예능 셀러'에 해당한다고 18일 밝혔다. '나를 부르는 숲'은 드라마 작가 김은희의 추천 도서로, 김은희는 지난해 12월 유명인들이 자신의 인생 책을 소개하고 기부하는 KBS 2TV 예능 프로그램 '비움과 채움-북유립'에 출연했다. 방송 전보다 판매량이 101배 뛰어 여행 분야 1위를 4주째 지키고 있다. 베스트셀러 저자인 김미경 강사는 지난 2일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파울루 코엘류의 '연금술사'를



연금했고, 이 책은 소설 분야 9위에 올랐다. 원태연 시인이 지난 6일 tvN의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직접 출연하자 그의 대표작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가 시 분야 1위에 올랐다. '년 가끔가다 내 생각을 해'

하지 난 가끔가다 판 생각을 해'도 시 분야 5위에 진입했다. 이들 책은 방송 후 각각 판매량이 98배, 274배 늘었다. 같은 날 한글을 처음 배운 충청도 '할매' 주미자·이유자 씨가 방송에 출연하자 손글씨로 쓴

요리책 '요리는 감이여'가 요리 분야 1위에 올랐다. 방송 전보다 판매량은 661배 증가했다. 정세랑 작가도 이달 13일 이 tvN 예능에 나왔고, '보건교사 안은영'과 '시선으로부터' 등 그의 작품 판매량이 2.3배 상승했다. 정 작가가 겨울방학에 읽으면 좋은 책으로 추천한 에거사 크리스티의 소설 '0시를 향하여'도 35배의 판매량 상승을 보였다. 같은 날 출연한 강문중 제주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의 '조선잡사'도 판매량이 15.4배 늘었다. 'TV 예능 셀러' 구매층은 여성(73.8%)이 남성(26.2%)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40대(31.9%), 30대(25.3%), 50대(21.2%), 20대(15.3%), 60대 이상(5.4%), 10대(0.9%) 등의 순이었다.

전순희기자

STICKER

네임스티커 & 각종 홍보판촉 스티커

전제품이 특수 방수 코팅 되어있어 컵이나 식기류에 붙여도 번지거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린이용품은 물론 각종 생활용품, 홍보물에도 활용하시기 좋습니다.

TOPPER

기쁜날 감동을 두배로 케이크토퍼
기념일 축하, 여행 감상사진, 기업홍보, 이벤트에 빠질 수 없는 케이크토퍼
토퍼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부설주차장 무료개방하면 시설개선비 지원

부설주차장 개방 시 포장공사, 주차라인 도색, CCTV 설치 등 시설개선비로 최대 2000만원 지원

전주시가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설주차장을 공유하는 공동주택과 종교시설, 학교 등의 시설개선을 지원키로 했다.시는 지속적인 차량 증가에 따른 도심 내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월 5일까지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신청대상은 역과 터미널, 전동시장, 상업지역 등 주차난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과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관리주체로 주차면 10명 이상을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이상 2년간 무료로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 대

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신청할 수 있다.시는 부설주차장을 개방한 곳에 포장공사 주차라인 도색 CCTV 설치 등 시설개선 비용을 주차면수에 따라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또, 사업 참여자가 사업 기간이 종료된 2년 이후에도 연장 개방을 원할 경우 최고 500만원의 시설유지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신청을 희망하는 기관과 시설은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와 계획서를 지참해 전주시청 교통안전과 교통안전팀으로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시는 접수된 기관·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다음 달 무료개방 지원 심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후 시는 선정된 기관·시설과 2년간 무료 개방 협약을 체결한 뒤 주차장을 개방할 예정이다.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9년부터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사업을 통해 25개소의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왔다.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도지매입 등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드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저비용 고효율의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불법주차차 문제를 해소해 시민의 보행권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송산권역,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주차문화 확립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홍보 및 제도 적극 추진

의정부시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교통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따뜻한 주차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제도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모든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시 주차편의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되어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 등이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만 주차가능하며 일반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거나 주차방해 행위 및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어·양도·위조·변조한 행위에 대해 10만원~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한, 공공기관 및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도 단속 대상이며 비장애인 노인이나 입산부가 탄 차량도 주차 할 수 없다.만약, 이를 위반한다면 공익신고제로 운영되어 누구나가 스마트폰으로 현장을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다.대규모택지개발이 포함된 송산권역은

상업·주거 밀집지역으로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하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에 대한 인지도 부족 등으로 매년 3천 건 이상의 민원신고가 접수되고 있다.이에 송산3동 복지지원과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11월까지 Refresh 의정부 뉴딜사업 추진을 통해 423개소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고 기존 부적합 시설에 대한 권고와 함께 상습위반 신고 구역에는 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 설치하는 한편 뉴딜사업 참여자를 통한 계도와 홍보에 집중했다.뿐만 아니라 전담 계도 요원을 연중 현장 배치해 수시로 계도·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 홍보캠페인을 7회 전개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계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이런 지속적인 노력으로 2018년 3천842건, 2019년 3천220건이었던 민원신고건수가 2020년에는 2천697건으로 감소하는 큰 효과를 거뒀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키는 것은 장애인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과태료 부과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키는 것이 배려가 아닌 의무라고 생각하고 실천한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에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송산권역은 4개동을 관할하고 있으며 타 권역에 비해 면적이 넓은 편이다.또한 상업지구와 택지개발지구 개발되면서 인구유입이 늘어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타 권역에 비해 위반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송산3동 관계자는 "송산권역 특수상황에 알맞은 다양한 방식의 홍보 활동을 통해 2021년에도 단속 위주가 아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식을 개선하는 계도와 홍보에 중점을 두고자하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장애인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지속해 최일선에서 누구나 살고 싶은 희망도시 의정부시 만들기에 선두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근/기자

당진시 '들개'잡는 전문 포획단 출동

들개 화 된 유기견 구조로 시민 안전과 동물 보호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당진시 전역에서 들개화 된 유기견으로부터 시민안전 위협, 염소, 닭 등 가축 상해 및 농작물 훼손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들개 전문포획단 활동을 지난 15일 시작했다고 밝혔다.지난해 3월에 발족한 들개 전문포획단은 시 의용소방대원 6명으로 구성되어 첫 해에 들개 300마리를 포획 및 구조하고 시 동물보호소에 입식시키는 성과를 거뒀다.이에 한층 고무된 들개 전문포획단은 "들개 포획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만

올해에도 더욱 안전한 방법으로 포획 및 구조해 시민안전과 농작물 등의 재산보호에 앞장서겠으며 동물보호에도 기여하겠다"며 야심차게 활동을 시작했다.시 축산지원과 김선호 축산기술팀장은 "전문포획단이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 및 동물보호에 기여한다는 호평과 기대를 받고 있어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며 들개 포획 및 구조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원호/기자



성남시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 시행

수거한 전단·명함·벽보 100장 단위로 묶어오면 1000원~4000원 지급

성남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시는 올해 1억3000만원을 투입해, 무분별하게 뿌려진 불법 유동 광고물을 떼오거나 주워 오는 시민에게 보상을 지급한다.수거 대상은 전신주·가로수·가로등·신호등·건물 외벽에 무단 살포한 음란·퇴폐성 전단과 명함이다.벽보는 A4 초과 크기 100장당 4000원, 이하는 2000원을 보상금으로 준다.A4 초과 크기 전단, 명함은 100장당 2000원, 이하는 1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제 참여 자격은 만 20세 이상 성남시민이며 최대 지급액은 하루 3만원, 월 20만원까지다.환경미화원, 공공근로자,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외로 한다.

수거한 벽보, 전단, 명함 등 불법 광고물을 보상받으려면 100장 단위로

묶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지고 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성남시는 지역에 광범위하게 계속 해서 뿌려지는 불법 광고물을 시민과

이성욱/기자

의정부시, 1월 말까지 방역수칙 지도점검 지속

의정부시는 노래연습장,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1월 말까지 방역수칙 지도점검을 지속한다.

1월 1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발표에 따른 것이다.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의하면 1월 18일부터 1월 31일까지 전국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 유지 및 수도권은 집합금지 시설 일부에 대해 조정된 방역조치를 적용한다.특히 수도권 사회적 거

리두기 2.5단계 조치 시 집합금지 되었던 노래연습장 등에 시설면적 8㎡당 1명을 기준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2단계 공통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의정부시는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관내 시설에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경찰서와 방역수칙 위반사항 및 시설별 불법 운영에 대해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김영근/기자



신동엽 이끄는 '배달고파? 일단 시켜' 핵심 키워드 전격 공개

언택트 시대 # 배달 맛 집투어 # 미식 X 대식가 X 먹방 셋 별



언택트 생활의 일상화로 배달음식 춘추전국시대가 펼쳐진 현 시대. 신동엽이 이끄는 배달음식 리뷰 예능이라는 참신한 기획으로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MBC 파일럿 예능 '배달고파? 일단 시켜'가 첫 방송을 앞두고 핵심 키워드 세 가지를 전격 공개했다. 오는 1월16일 밤 9시50분 첫 방송되는 MBC 파일럿 예능 '배달고파? 일단 시켜'는 최근 '배달의 시대'에 들어서 대한민국의 숨은 '짤' 배달 맛집을 찾는 국내 최초 배달 맛집 리뷰 예능 프로그램. 연예계 대표 미식가 MC 신동엽을 필두로 대식가 현주엽과 박준형, 미식가 이규 한, 먹방계 셋별 몬스타엑스 셔누가 펼쳐 다수의 배달음식 경험에서 나온 베테랑 눈썰미와 음식에 대한 안목으로 배달 맛집 투어에 나선다. 지난해 전세계를 휩쓴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강제 언택트 시대에 돌입하게 되면서 생활 양식에 있어 음식배달문화가 우리 삶을 강타했다. 식당들 역시 이 같은 시대상 속 유명 맛집은 물론 소규모 노포들까지 음식 배달에 가세하는 등 빠르게 대응했고 음식배달문화는 이제 우리 일상의 일부가 돼버린 상황. 이에 '일단 시켜'에서는 달라진 생활문화 속 본격 배달음식 리뷰를 통해 언택트 시대에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미식에 대한 욕망을 맛깔나게 충족한다. 내 방에서 즐기는 고크리티 배달 음식은 물론, 나의 홈그라운드가 아닌 타 지역 배달 맛집에 대한 깨알 같은 리뷰와 정보 습득까지, 급격히 달라진 생활문화 속 배달음식으로 경험하는 미식이라는 신세계가 펼쳐지는 것. 미식가로 소문났지만 배달음식과는 친하지 않았던 MC

신동엽이 언택트 시대에는 배달음식 초보 '배린이'로 강등되는 등 언택트 시대가 열어젖힌 배달 맛집이라는 신세계는 시청자들 역시 새로운 세상으로 안내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격적인 배달 맛집 투어가 '일단 시켜'를 통해 시작된다. 배달 음식이라고 하면 미식과는 거리가 멀 거라는 편견을 단박에 깰 만큼 다양한 배달 음식이 '일단 시켜'를 통해 줄줄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 고급 식재료를 사용한 퀄리티 훌륭한 배달 음식은 물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전통 맛집의 배달 버전,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노포들의 손맛 가득 담긴 일반식, 화려하기 이를 때 없는 디저트와 식음료까지 총천연색 음식들이 배달되며 달라도 다른 맛을 선사하며 한층 업그레이드된 배달 음식의 오늘을 맛있게 조명한다. '일단 시켜'에는 음식에 있어 까다로운 입맛을 자랑하는 미식가는 물론이거니와 압도적으로 많은 음식을 먹어본 경험을 토대로 진짜 맛있는 음식을 선별해 낼 수 있는 대식가, 오늘도 삼시세끼를 열심히 챙겨 먹으며 먹방계 셋별을 꾸무는 이들까지 음식과 맛에 있어 일가견이 있는 5MC 조합으로 든든한 배달음식 탐방에 나선다. 다년간의 미식프로그램 진행과 직접 요리하는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연예계 대표 미식가로 소문난 MC 신동엽과, 역대급 먹성으로 단시간 안에 먹방 톱클래스로 우뚝 선 현주엽, 그런 현주엽이 인정한 연예계 숨은 대식가 god 박준형, 다년간의 자취 생활로 배달음식 마니아에 빛나는 이규한을 비롯해 오랜 숙소 생활로 배달음식에 단련된 몬스타엑스 셔누까지 5MC 조합의 현란한 먹방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리액션은 배달음식 리뷰 예능 '일단 시켜'를 한층 풍성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전순희/기자

어떻게 써야 돼? 이거?

'배달고파? 일단 시켜' 배달 앱 초짜 신동엽 - 박준형



MBC '배달고파? 일단 시켜'에서 배달 앱을 처음 사용한 배달 앱 '초짜' 신동엽과 박준형이 배달 블랙홀에 빠진 모습이 포착됐다. 배달 앱을 처음 접한 이들은 '물음표 살인마'로 변신해 기상천외한 질문으로 현장을 초토화시켰다. 오는 16일 토요일 밤 9시 50분 첫 방송되는 MBC 파일럿 예능 '배달고파? 일단 시켜' 측은 15일 네이버 TV를 통해 배달 앱 사용이 버거운 연쇄 물음 살인마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선공개했다. 선공개 된 영상에서는 배달 앱 사용이 서툰 '배달 초보' 신동엽과 박준형이 '연쇄 물음표 살인마'로 맹활약하는 모습을 공개해 폭소를 자아낸다. 멤버들에게 '양념 고기'를 주제로 배달 맛집을 찾아야 하는 미션이 주어지고 멤버들의 휴대폰이 등장했다. 각각의 휴대폰을 찾아 들어 드는

가운데 당황한 이규한은 "내 휴대폰 로즈골드인 거 비밀이었는데..."며 뜻밖의 커밍아웃에 부끄러워했다. 다급하게 두 손으로 핸드폰을 가린 이규한은 "나만 아는 비밀이었는데"며 억울해 해 현장을 웃음 바다로 만들었다. "어떻게 써야 돼? 이거?"며 배달 앱 검색부터 난관에 부딪힌 박준형은 막내 셔누의 도움을 받아 검색에 돌입했다. 그러나 그는 검색창에 '양념'이 아닌 발음 그대로 '양연'이라고 입력했고 이를 본 이규한은 "형, 한국어부터 배우야 하는 거 아니에요?"며 놀렸다. 한편 조용히 맛집을 검색하던 현주엽은 자신도 모르게 유명 맛집 이름을 발설했고 이를 들은 이규한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띄웠다. 이규한은 재빠르게 앱에 검색을 했지만 배달 가능 지역을 벗어난 가게로 결국 주문에 실패해 폭

소를 자아냈다. '반백스' 박준형은 "눈이 침침해서 안 보인다"며 셔누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가까스로 '양념갈비' 검색에 성공했다. 하지만 그는 곧 배달 블랙홀에 빠져 "여기서 토끼 고기 파나봐". "무한 삼겹살은 계속 공짜로 주는 거야?", "왕갈비 통닭이 무슨 뜻이야?", "치킨에도 갈비 맛이 있어?"며 엉뚱한 질문을 쏟아내 '물음표 살인마'의 등장을 알렸다. 이 때 '블랙홀 뉴비' 신동엽이 등장해 '회원 가입을 다 해야 돼?', "닉네임을 왜 쓰는 거야?"며 박준형에 버금가는 '물음표 살인마' 활약으로 시선을 강탈해 웃음을 자아냈다. 배달 블랙홀에 빠진 '물음표 살인마' 아재들이 주문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오는 16일 방송되는 '배달고파? 일단 시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순희/기자

"바람을 왜 피셨어요? 누나랑"

사면초가 '홍수현 매니저' 눈 앞에서 사망 충격 그 자체



'바람피면 죽는다' 고준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아내 조여정이 시키는 대로 그녀가 만든 도시락을 홍수현 매니저 유준홍에게 건넸다가 이를 먹던 매니저가 갑자기 사망한 것. 자신의 외도 사실을 아는 매니저의 죽음은 그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으며 소름 돋는 엔딩을 선사했다. 또한 9년 전 조여정과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바람을 피웠고 의문의 차량 폭발 사고로 동거녀와 함께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도 공개돼 소름을 유발했다. 정훈자의 죽음이 조여정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데다, 고준과 단둘이 있던 유준홍의 급사 또한 조여정이 꾸민 살인 시나리오인지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지난 14일 방송된 KBS 2TV 수목 드라마 '바람피면 죽는다' 12회에서는 남편 한우성과 고미래의 관계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강여주의 모습이 그려지며 그녀의 과거사가 밝혀졌다. 지난 방송에서 여주는 미래의 문자 메시지 속 변화를 보고 우성을 향한 미래의 마음을 확실히 알아챘다. 심기가 불편해진 그녀는 우성이 입었던 필드재킷을 내다 버렸다. 쓰레기 봉지에 넣어 필드재킷을 발견한 우성은 여주에게 미래와 아무 사이도 아니라 해명했지만, 여주는 "고미래는 당신을 좋아해, 당신도 그걸 즐기잖아"며 우성의 정곡을 찔렀다. 하필 이때 미래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고 우성은 여주가 보는 앞에서 전화를 받았다. 그는 미래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다시 한 번 재고를 밝혔다. 그러나 다음날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은 우성은 집에서 나와 이곳에 피해 있던 미래와 만났고 라면 데이트로 이어졌다. 미래는 우성의 자상함에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 미래를 가난한 학생으로 아는 우성은 연민을 느꼈다. 우성은 앞으로 연락해도 되느냐는 미래에게 다른 휴대전화 번호를 주며 관계 발전에 여지를 남겼다. 한편 위치 추적 장치로 우성이 단골 라면집에서 점심을 먹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여주는 미래와 함께 있으면서 중국 요리를 시켰다는 우성의 뻔한 거짓말에 분노했다. 그녀는 새 책 '바람피우면 죽는다'의 내용인 변호사와 여배우의 불륜을 언급하며 우성을 긴장시켰다. 배수정 매니저 김덕기의 요청으로 경찰서에 가게 된 여주는 우성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그를 알선했다. 그녀는 덕기에게 궁금점 접을 대신 물어봐 달며 직접 쓴 도시락을 우성의 손에 들려 보냈다. 덕기는 여주가 쓴 도시락을 허겁지겁 먹었고 우성은 물을 떠다 주며 덕기를 자상하게 챙겼다. 하지만 반전이 있었다. 덕기가 자신과 수정의 불륜을 알고 있었던 것. 덕기는 긴장한 우성에게 "바람을 왜 피셨어요? 수정이 누나랑"이라고 대놓고 물었다. 오히려

우성에게 그는 우성이 수정의 오피스텔에 드나드는 장면이 찍힌 CCTV USB가 있다고 해 충격을 줬다. 이때 수정의 오피스텔 CCTV USB의 소재를 덕기에게 물어봐 달라는 여주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고 우성의 표정은 두려움으로 창백해졌다. 덕기는 우성에게 귀속말로 USB가 있는 곳을 말한 뒤 이내 발작을 일으키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모습으로 공포를 유발했다. 덕기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충격에 휩싸인 우성의 모습이 엔딩을 장식하며 앞으로의 전개에 궁금점을 끌어올리고 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덕기 외에도 우성과 수정의 불륜을 아는 인물들이 등장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그 주인공은 여주와 우성의 집 기사 도우미인 연진옥. 진옥은 우연히 수정의 오피스텔을 지나다 우성을 발견했고 우성이 수정과 진한 스킨십을 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우성의 옷에서 땀을 꺼내 감춘 그녀는 누군가에게 돈을 부쳤으며 완벽한 해결을 지시해 또 하나의 미스터리로 시작을 알렸다. 그런가 하면 여주의 과거를 조사 중이던 국정원 최정애 요원 차수호는 여주의 정점장 측 예비심판이 여주가 다니던 언론사의 기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또한 주인공이 결혼식을 올리기 전 차량 폭발 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실이 드러났다. 더 놀라운 점은 주인공의 차량 폭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주인공이 여주와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었다. 수호는 차량 폭발 사고로 주인공과 그의 동거녀 모두 사망했다는 사실과 여주가 사회부

기자로 처음 쓴 기사, 바람을 피는 남자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소설들을 떠올리며 정훈자의 외도를 안 여주의 완벽한 계획 살인이라고 의심했다. 그런가 하면 여주의 기억 속 정훈자 주민재는 여주에게 청혼하면서 그녀의 아버지를 만나겠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여주의 아버지가 누구일지 호기심을 자극하는 가운데, 이 같은 과거를 떠올리며 여주가 "용서 못해"며 섬뜩한 분노를 드러내 그 대상이 누구인지도 궁금점이 쏘고 있다. 한편 지난 11회 처음 등장한 서재하가 미래에게 극도로 집착하는 모습이 궁금점을 높였다. 잠든 미래의 방에 침입한 괴한이자, 미래를 검탈하려 한 그의 정체는 무엇일지 호기심을 자극했다. 이날 '바람피면 죽는다'를 접한 시청자들은 "강여주는 범인 같으면서도 범인이 아닌 것 같고 대체 정체는 뭐냐?", "고미래와 서재하의 관계가 궁금하다. 고미래 집안 사람들을 하인 부리듯 하네~", "한우성과 고미래는 운명적으로 서로에게 끌리고 있네요. 그래서 1회에서 한우성 피 흘린 거 아닌가요?", "다음주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너무 궁금해 미치겠음" 등 폭풍 반응을 쏟아냈다. 한편 '바람피면 죽는다'는 오로지 사람을 죽이는 방법만 대해서만 생각하는 범죄 소설이 아니라 '바람피면 죽는다'는 각서를 쓴 이훈 전문 변호사 남편의 코믹 미스터리 스타일로 죄책감을 안고 나쁜 짓을 하는 어른들에 대한 과격적이고 강렬한 이야기를 선보이며 호응을 얻고 있다.

최재은/기자

역대급 화제성 입증한 '부뚜막 고양이', 그의 9연승 도전 결과는

오는 일요일 방송되는 MBC '복면가왕'에서는 9연승에 도전하는 가왕 '부뚜막 고양이'와 그를 막으려 운실력자 4인의 솔로곡 무대가 펼쳐진다. 지난주에 이어 21인의 스페셜 판정단으로는 아이돌 절친라인 비투비 서은광과 투에니원의 산다라박, 2연승 가왕 '백수탈출' 더원, '뮤지컬 황태자' 민우혁, 애즈원 민, '뿐이요' 박구윤, '만능 엔터테이너' 현영, 개그맨 정성호 & 안일권 & 이상준 & 김기리 & 홍윤화 & 오나미, 솔로 뮤지션 최환희가 불꽃 주리력과 입담으로 큰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지난 경연, 자우림 '영원히 영원히'로 압도적인 무대를 선보여 8연승에 성공하며 연일 화제를 몰고 다녔던 가왕 '부뚜막 고양이'가 9연승에 도전한다. 지난 방송 직후, 가왕 '부뚜막'은 실시간 검색어 1위는 물론, 무대 조취수가 역대 시간 만에 10만 뷰를 돌파하는 등 '화제성 가왕'이라는 수식어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그런 그의 9연승 도전에 네티즌들 또한 "고양이가 음악대장 기록 갱신 있을지 궁금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그의 9연승 도전 무대에 기대감

을 불어넣고 있는 상황. 과연 가왕 '부뚜막 고양이'는 자리를 지켜내며 9연승 가왕 '음악대장' 하현우의 기록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가왕 '부뚜막 고양이'의 9연승을 저지하기 위한 무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프로 판정단 윤상이 한 복면가수를 향해 찬사를 보낸다. 그는 무대를 본 후 "판정단을 하는 동안 이런 반전의 무대는 처음이다. 듀엣 무대와는 상반된 매력"이라며 복면가수의 가장 매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과연, 윤상이 감탄한 복면가수의 무대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궁금점이 더해진다. 한편 지난주 듀엣 무대부터 가왕감으로 점쳐진 복면가수에게 관심이 집중된다. 복면가수의 솔로곡 무대를 본 판정단들은 "유혈이 남자한 승부가 될 것", "고양이 긴장해야 할 듯" 등의 반응을 보이며 복면가수의 가왕전 진출을 점친 바 있다. 과연 복면가수는 모두의 예상대로 가왕전에 진출하며 가왕 '부뚜막 고양이'를 위협할 수 있을지도, 어떤 무대로 판정단들의 환호를 자아낼지 기대감을 증폭시킨다.

최민식/기자



LPGA 명예의전당 세번째 한국인은?

"내 직업은 골퍼다. 코미디는 그린 피를 밟기 위한 돈벌이 수단일 뿐이다." 세계적인 코미디언 밥 호프(미국)가 종종했다는 농담이다. 호프는 생전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골프광이었다. 전세계 2000여 골프장에서 라운드하면서 7차례나 홀인원을 기록했다. 1965년부터 2011년까지 자신의 이름을 내건 PGA투어 밥 호프 클래식을 개최했다.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 호프는 1983년 '세계골프 명예의전당(World Golf Hall of Fame)' 회원이 됐다.



호프처럼 터러 예외가 있던 하지만 골프 명예의전당 회원 현역은 기본적으로 골프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선수들이 대상이다. 골프의 역사를 수립한 위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세계골프 명예의전당은 1974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파인허스트에 처음 세워졌다. 그러다가 1998년 플로리다주 세인트 어거스틴의 '월드 골프 빌리지'로 자리를 옮겨 오늘에 이르고 있다.

명예의전당에서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골프 레전드는 '골든베어' 잭 니클라우스(미국)다. 입구에 들어서면 역사적 장면인 1986년 마스터즈 때의 위닝 세리머니가 한눈에 들어온다. '골프성인' 바비 존스(1902~1971)의 다음과 같은 위대한 명언도 볼 수 있다. "골프는 우리가 인생이라고 부르는 게임과 가장 닮았다. 좋은 샷에서 나쁜 점수를 얻을 수도 있고, 나쁜 샷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도 있다." 한국인 중에는 박세리(44)가 유일하게 현역에 있다. 박세리는 세계골프 명예의전당과 LPGA 명예의전당이 통합 운영되던 2007년 LPGA 명예의전당에 헌액되면서 동시 가입됐다. 세계골프 명예의전당 라커룸에는 1998년 US여자오픈 우승 트로피를 든 박세리의 옛된 모습이 걸려있다. 명예의전당 측은 "박세리는 골프의 개척자 중 한 명으로 기억될 것이다. 1998년 박세리의 US여자오픈 우승은 현재 LPGA투어를 휩쓸고

(이상 미국)다. 우즈는 명예의전당 선정위원회가 50세였던 임회 기준을 지난해 45세로 낮추면서 임회 자격을 획득했다. 이들 3명의 임회자는 코로나19로 1년 연기됐다. 국내 골프팬들에게는 LPGA 명예의전당에 입회할 세번째 한국 선수는 누가 될 것인가로 쏠려 있다. 현재로서는 김세영이 지난해 메이저대회인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등 통산 12승으로 명예의전당 포인트 14점을 획득하고 있다. 그중에는 작년 올해의선수상 포인트 1점도 포함돼 있다. 2024년까지 13점만 채우면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 김세영이 데뷔 이후 매년 1승 이상씩을 거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능성은 높다. 김세영은 "박세리, 박인비 선배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그 다음은 세계랭킹 1위 고진영(26·솔레이아)이다. 올해로 투어 4년째인 고진영은 통산 7승을 거두고 있다. 그중 메이저대회 2승과 올해의선수상, 베퍼트리코피(최저평균타수상), 올해의선수상(최저평균타수상), 올해의선수상(최저평균타수상)을 수상했다. PGA 투어 커미셔너 팀 핀척(공헌자 부문), 그리고 고(故) 매리언 홀린스

정동희/기자

'포항맨' 백기태 감독이 말하는 유스 지도자의 사명감과 즐거움

네 번째 트로피 백기태 감독은 코로나19 여파로 2020 KFA 시상식이 열리지 않게 된 것이 자신에게는 다행이라고 했다. 그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이 부끄럽다"며 웃었다. "올해의 지도자상은 김학범 감독님(2018년 수상자)이나 정정용 감독님(2019년 수상자) 같은 분만 받으시는 줄 알았다"는 백기태 감독은 시상식 무대에서 밝히지 못한 수상 소감을 통해 전하기도 했다. "2020년은 최고의 한해였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두 힘들었지만 자기 위치에서 고생해준 선수들과 코칭스태프들 덕분에 좋은 성과를 냈고 큰 상까지 받았습니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도자라면 누구나 꿈꿔보지 못한 상을 받게 돼 기쁩니다. 훌륭한 다른 지도자분들이 많은데 제가 올해 재수가 좋아 상을 받게 된 것 같아요." 포항제철고는 2020년 K리그 U-18 챔피언십, 부산MBC 전국고등학교축구대회, 전국고등축구리그 왕중왕전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하면서 3관왕에 올랐다. 백기태 감독은 거듭 "운이 좋았다"며 겸손해했다. 그는 "K리그 U-18 챔피언십은 포항에서 열린 대회라 보니 흠이 있었었다. 당연히 결승전에 가야 한다는 주위 반응 때문에 부담감이 있었지만 선수들이 잘 이겨내고 우승까지 이뤄냈다. 부산MBC 대회는 핵심 선수들이 남아 U-19 대표팀 차출로 빠진 상태였는데, 그동안 기회를 받지 못했던 선수들이 기회를 받으면서 동기부여가 됐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열린 전국고등축구리그 왕중왕전은 가장 우승에 대한 기대가 없던 대회였다. 대표팀 차출로 인한 공백을 1, 2학년 선수들이 잘 메워줬고, 준결승전부터는 차출된 선수들이 돌아와 합류하면서 더욱 힘을 냈다. 백기태 감독은 "대진운도 있었다. 같은 프로 산하팀과 붙지 않았다. 실력 문제가 아니라, 프로 산하팀과 만나면 서로를 너무 잘 알아서 꺾인다. 잘 모르는 학원팀, 클럽과 만난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포항제철고 감독을 맡고 있는 백기태 감독은 첫 3관왕에 대해 "우승은 실력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운이 따라야 한다. 한 번의 우승만 해도 그러니 3관왕은 모든 상황과 환



경이 잘 맞아떨어져야만 가능한 것 같다. 해보니까 알겠다"며 웃었다. 그는 "내년이 정말 부담스럽다"고도 덧붙였다.

포항맨의 사명감 백기태 감독이 다관왕을 경험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포항제철동초(포항스틸러스 U-12) 감독을 맡으며 수많은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특히 2014년에는 전국초등축구리그 왕중왕전 우승을 비롯해 5관왕을 차지했다. 당시 포항제철동초 6학년이었던 홍윤상, 윤석주, 김준호 등이 2020년 3관왕의 주축인 포항제철고 3학년들이었다. 이들을 포함한 6명이 포항스틸러스의 우선지명을 받아 2021년부터 K리그1 무대를 밟을 준비를 하고 있다. "선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다치지 말고 잘하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 프로에 갔다고 절렁대지 말라고(웃음). 매년 프로에서 그냥 사라지는 선수가 정말 많잖아요. 다들 잘해서 살아남았으면 좋겠어요." 백기태 감독이 몸담고 있는 포항스틸러스의 유스 시스템은 '유망주 화수분', '믿고 쓰는 포항산' 등과 같은 별칭을 낳을 정도로 탄탄함을 자랑한다. 제자들에게 대한 격정과 열려만금이나 유스 시스템의 한 축으로서 갖는 백기태 감독의 사명감을 수박에 얹었다. 포항제철동초, 포항제철중, 포항제철고를 졸업해 포항스틸러스에서 프로 생활까지 했던 '포항맨' 백기태 감독은 "크게 보면 한 팀인 곳에서 이렇게 꼭 선수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는 행운이라 생각한다. 이런 지도자가 몇 명이나 있겠느냐"고 말했다. 강한 책임감은 백기태 감독을 한 발 더 움직이게 한다. 그는 "표현을 잘하는 편은 못해서 늘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한다. 그게 선수들한테는 더 낫더라. 감독이라고 훈련할 때 뒷짐 지고 서있거나 안 나오는 것보다는 훈련에 같이 참여하면서 선수들과 호흡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선수들을 한 명, 한 명 관찰해서 각 선수의 성향, 스타일, 태도 등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경기 중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판단하고 찾아 넣을 수 있죠. 코치들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내 머리에 입력이 돼야 해요. 그래야 선수 개인도 발전시킬 수 있고 팀도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백기태 감독의 노력은 단 한 명의 선수도 놓고 가지 않는다는 철학에서 비롯된다. 포항제철고는 학년 당 11명씩 33명만의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 백기태 감독은 "처음 선수를 선발할 때부터 신중하게 정예멤버를 뽑는다. 여러 명을 뽑았다가 나오시키는 개념이 아니다. 3년 동안 꾸준히 발전시켜서 3학년 때 성과를 내고 프로 또 대학에 보내겠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선수라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물론 쉽지는 않다. 제법 머리가 자란 고등학생들을 다루기란 어렵다. 백기태 감독은 "실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장이 돼있는 선수들이다. 저마다의 개성과 신념이 있는 선수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래도 혼내고 다그치기보다는 기다려주고자 한다. 칭찬이든 타이름이든 짧게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기다려주는 편"이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도쿄 올림픽 취소되면 KBO 리그는 어떻게 되나

제32회 도쿄 올림픽 취소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KBO 리그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은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7일 "고노 다로(58) 일본 행정개혁 담당상이 일본 각료 중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도쿄 올림픽 취소 가능성을 언급해 파문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고노 담당상은 일본 차기 총리 1위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는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무관용 가능성 등을 포함해) 도쿄 올림픽 준비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개최할 지 안 할 지) 둘 중 어느 쪽으로 돌아설 지 모른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올림픽 개최를 고수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일본 각료로는 최

초로 고노 담당상이 올림픽 취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만약 올림픽이 제대로 열리지 못할 경우, KBO 리그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21 시즌 KBO 리그 개막일은 4월 3일 토요일로 확정돼 있는 상태다. 도쿄 올림픽은 올해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펼쳐질 예정이다. 일단 KBO는 대표팀 차출이 예정돼 있는 이 기간을 '올림픽 휴식기'로 정해놓았다. 하지만 올림픽이 취소될 경우, 2020 시즌처럼 일정을 재편성한다는 계획이다. KBO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올 시즌 리그 세부 일정은 현재도 계속 짜고 있는 중이다. 만약 올림픽이 취소된다면, 비어 놓은 휴식기에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뒤에 편성돼 있는 일정을 당겨올 것"이라면서 "올림픽 출전

으로 인한 국위 선양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선수들의 안전이다. KBO는 이 부분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올림픽 개최 주의를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림픽 개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유럽과 미국, 일본 등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IOC(국제올림픽위원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올림픽이 제대로 열리는 게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와 블룸버그 통신 역시 올림픽 개최에 대해 비관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 또 최근 일본 NHK 방송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77%가 도쿄 올림픽을 취소하거나 재차 연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재은/기자

홍창기 163.2% 최고 인상률, LG 연봉 협상 완료

LG 트윈스가 연봉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LG는 15일 "2021년 재계약 대상 선수 35명 전원과 연봉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홍창기는 연봉 3800만원에서 6200만원(인상률 163.2%) 인상된 1억원에 계약하며 팀 내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고 정우영은 8000만원에서 1억원(인상률 125%) 인상된 1억 8000만원에 계약했다. 최동환은 7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인

상됐다. 인상률은 71.4%. 홍창기, 정우영, 최동환은 처음으로 역대 연봉에 진입했다. 그 외에 유강남이 2억3000만원에서 30.4% 오른 3억원에 도장을 찍었고 임찬규는 1억3500만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민호는 2700만원에서 159.3% 인상된 7000만원에 계약했다. 이민호는 홍창기에 이어 두 번째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다.

전순희/기자



경북 동촌체험휴양마을
美에 반하다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보약같은 쉼표하나

경북농촌체험휴양마을

답답하고 스트레스로 지친 일상,
주말에는 도시를 벗어나 푸른 자연과
향수 어린 농사 체험 및 문화체험은 어떠신가요?
푸르른 강과 수려한 산들이 상쾌함을 더하고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몸과 마음의 보약같은
쉼표하나, 경북농촌체험휴양마을을 만나보세요.

